

# 충남 시·군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

서윤정



# 발 간 사

농업기술센터는 1962년에 제정된 농업진흥법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농촌지도소가 1998년에 개편된 기관이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농업인 교육,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기술보급,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육성,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등에 있었다. 그러나 농업 비중 악화, 농업부문의 취업자 수 감소, 농가 수의 감소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 및 기술문화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미션과 역할도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편, 현재 농촌지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중앙과 지역의 조화,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조화 균형, 농업생산기술 및 외연확대기술의 균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은 기술 및 시장 패러다임의 전환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농촌지도사업만으로는 모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농업환경 및 여건에 맞춰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가 가진 본연의 미션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재검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생산기술을 보급할 수 있고, 다기능 농업 및 농업의 6차산업화, 고부가가치화 등의 시대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과 농촌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연구비로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서윤정 대표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자문위원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연구 요약

## 1. 연구배경 및 목적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농업과 농촌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역할은 농업인 교육,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기술보급,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육성,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등이 있어 왔다. 하지만 농업 비중 악화, 농업부문의 취업자 수 감소, 농가수의 감소로 농업기반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미션과 역할도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은 지역농업인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의 정책방향 및 지도 역량은 지역 농업의 역량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농업인 및 농촌마을을 지원하려는 중간지원조직도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존의 행정과 지도만으로는 농업인 역량강화와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인 이외에도 새로운 취농인,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지역소상공인과의 연계 등 그 대상범위도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업과 농촌을 하나의 낙후된 자원과 지역으로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원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범위는 확대되고 타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업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 기술문화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도 변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의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적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재정립이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 및 여건에 맞춰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인 교육, 농업기술 보급 등 농촌지도사업에서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농업농촌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는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사례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및 추진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럼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진 본연의 미션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재검토 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생산기술을 보급할 수 있고, 다기능 농업 및 농업의 6차산업화, 고부가가치화 등의 시대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 주요 연구내용

### ◇ 농촌지도사업이 변화해야한다

농촌진흥법(2015)에서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 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농업후계인력 및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그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은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통한 식량증산과 농업기술의 발달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한 이후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동안 타성적으로 추진하던 증산 일변도의 사업방식이 더 이상 소득과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영개선이나 판매지도 등과 같은 기술보급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의 지방직화 이후 농촌지도조직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농촌지도 조직은 일반 행정조직에 준하여 중앙단위에 농촌진흥청, 도 단위에 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3단계로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3개 기관의 수직적 구조외에 도 농업기술원은 해당 도의 통제를 받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시·군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일원화 되지 않은 혼돈스러운 체계로 보일 수 있지만, 네트워크가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농촌지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횡과 종의 네트워크 중심으로서의 역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즉, 중앙과 지방을 매개하고, 지방의 행정과 지도를 매개하는 조직으로서의 농업농촌과 관련된 기능과 활동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존의 농촌지도기능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증식이라는 목표라는 것에 한정되어서 정해졌다면, 지금의 농촌지도기능은 지역적 이슈와 관심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양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창기의 개념과는 벗어난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질 수 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즉, 지역이라는 틀 안에서의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요구조건, 그리고 기존 사업적 관행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의 농촌지도사업의 큰 화두가 되는 것이다.

#### ◇ 농촌지도사업은 협업을 통해 지도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 및 외국사례를 보면 지도사업의 대상과 협업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가공업의 성공적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문경시의 경우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수입증대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가공지원과 창업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농업의 구조가 1차 생산품만을 가지고 농가소득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가공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이다.

또한 로컬푸드도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완주군의 경우는 로컬푸드 통합 추진전략은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상업농과 협력 및 보완을 통해 지역농업 전반에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 영역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로컬푸드 생산·유통·소비를 조직화하고 추진조직 정비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정책프로세스를 통해 수립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농촌지도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동(협업)사업으로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급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체와의 연계를 통한 보급사업의 전문화등을 꾀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경우는,

먼저 농촌지도의 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농촌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대하여 기존 사업영역 외에도 건강, 영양, 수질, 비만, 실내 환경, 공공정책,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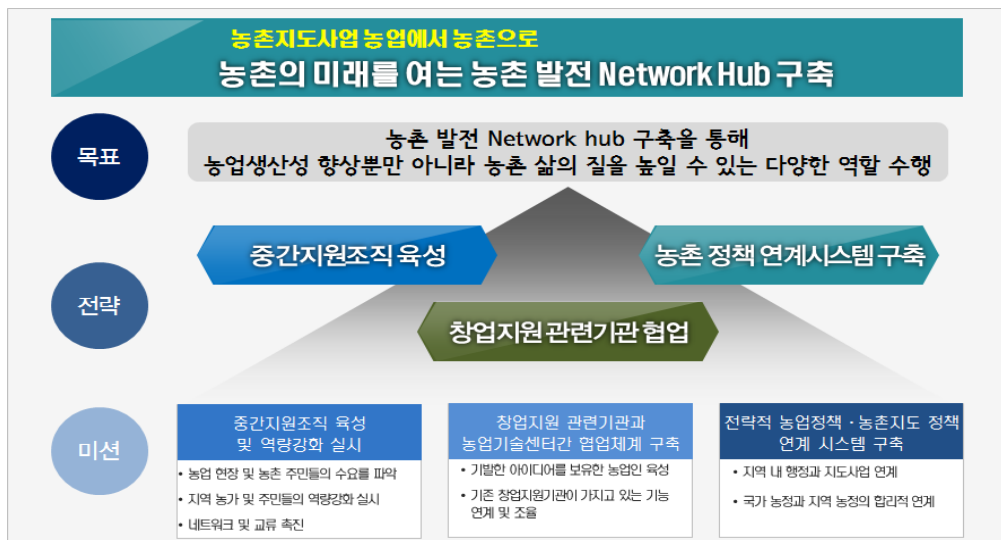
이처럼 농촌지도사업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생산중심에서 가공, 유통 등 지역내의 로컬 푸드시스템 구축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도 농업인에서 비농업인까지 확대되어, 건강, 비만, 보건등으로 그내용도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기관의 단독사업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농촌발전의 네트워크 허브로 재 정립되어야 한다.

지금의 농촌지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중앙과 지역의 조화,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조화 균형, 농업생산기술 및 외연확대기술등 모순되어 보이는 듯 한 사이에서 그 발전 비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최근은 기술 및 시장 패러다임의 전환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농촌지도사업만으로는 모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미래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농촌지도사업 농업에서 농촌으로, 농촌의 미래를 여는 농촌 발전 Network Hub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중간지원조직 육성(협력) , 창업지원 관련 기관과 농업기술센터 협업, 농촌지도사업 수행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





〈그림 1〉 농촌지도사업 비전 및 목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업의 6차산업화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농업인은 기존의 관행적인 농업생산만으로는 소득 보존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공, 유통, 체험, 서비스 등의 사업으로 다각화 하기 위해서는 농업이외의 분야, 가공, 판매, 유통, 회계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 지원차원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더욱 필요하며, 행정과 농업인을 매개함으로써 사업의 실패확률을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행정적 시각과 비즈니스 적 시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최근 발전하고 있는 ICT 및 과학기술의 농업 농촌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현장을 매개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농업이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우고 사업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례로 살펴볼 부분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대부분의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창업 관련 기관들 간의 미흡한 연계협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 창업지원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연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려 노력하는 점에서 향후 농촌지도기관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농업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지역 농업 분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방안에 입각한 농촌지도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도사업과 행정정책사업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연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략방향을 위해서는 농업의 지역적 특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지역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지역의 적절하고 합리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지역이라는 경계내에서만 특화품목을 우선시 하였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전체 범위속에서 지역특화품목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품목의 육성,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업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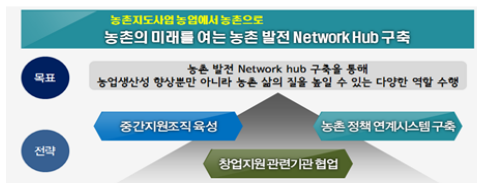
홍성군의 농산업 및 지도체계의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첫째, 과채류 중 딸기와 채소류에서 배추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체로 홍성군의 농업은 축산 및 벼농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 특화품목 개발이 절실하다.

둘째,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투자 및 홍성군 유기농 브랜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홍성군은 농업인의 포괄적 의견수렴의 통로가 필요하다. 농업인 상담소는 동부, 서부, 남부 상담소 3곳으로 다른 지역의 농업인 상담소에 비해 상담소 수가 적은 편이다. 상담소 외에 농업인과 교류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기술을 보급·전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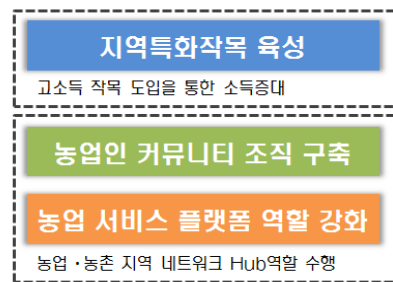
### 농촌 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 홍성군 농업·농촌 현황 및 시사점



###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과제 도출



〈그림 2〉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과제 도출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기존 홍성군이 축산 및 벼농사위주의 농업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유기농 특화지역인 홍성군의 강점을 살려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구축은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현장 수요를 농촌 지도 및 연구,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제안하였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 현장의 요구 및 수요를 전달 받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창업, 농업기술, 정책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에 다양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농업 서비스 플랫폼 역할 강화를 과제로 도출하였다.

## 3. 결론 및 시사점

농촌지도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이러한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 혁신 방안, 농촌지도기관 간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향후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특화품목을 중심으로한 관련 사업 확대, 농촌지역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 확대, 비즈니스 지원창구로서의 창업 경영지원 관련 기관과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가 중요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홍성군은 축산과 쌀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홍성군 대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화작목을 선정한 이후에는 특화작목 전담부서 조직과 특화작목 생산자 학습조직을 구축해야하며,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이 육성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이 '문제제기 → 집합적 학습 → 조직화'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조직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다양한 농업 서비스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 환경 정보, 일자리 정보, 농업 교육정보,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연구개발 정보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을 의미한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2

## 제2장 농촌지도사업 여건 분석

1. 농촌지도사업 개념 및 변화 .....	4
1) 농촌지도사업의 개념 .....	4
2) 농촌지도사업의 변화 과정 .....	5
3) 농촌지도조직 현황 .....	5
4) 농촌지도조직의 주요 이슈 .....	11
5)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	12
2. 국내 농업 외부환경 분석 .....	13
1) 정치적 환경 : Political .....	14
2) 경제적 환경 : Economic .....	15
3) 사회적 환경 : Social .....	17
4) 기술적 환경 : Technological .....	18
5) 외부 환경분석(PEST)에 관한 시사점 도출 .....	19
3. 국내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기관 우수 사례 검토 .....	21
1) 문경시 농식품특성화센터 운영(농식품 특성화 사업) .....	21
2) 완주군 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례 .....	23
4. 해외 농촌지도 사업의 사례 .....	26
1) 미국의 농촌지도 사업 .....	26

2) 일본의 농촌지도 사업 .....	30
3) 네덜란드의 농촌지도 사업 .....	32
4)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34

### 제3장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과제

1.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수립 .....	35
2.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	36
1) 중간지원조직 개념 및 유형 .....	36
2)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필요성 및 역할 .....	37
3) 중간지원조직 주요 이슈 .....	40
3. 창업지원 관련 기관과 농업기술센터 협업 .....	42
1) 창업지원 관련 기관과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 필요성 .....	42
2)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 .....	43
4. 전략적 농업정책·농촌지도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 .....	44
1) 지역내 행정과 지도사업의 연계 .....	44
2) 국가농정과 지역농정의 합리적 연계 .....	45

### 제4장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를 사례로 발전방향 제시

1. 홍성군 농업·농촌 현황 .....	46
1) 홍성군 인구현황 .....	46
2) 홍성군 농업현황 .....	48
2.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운영 현황 .....	57
1)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역할 범위에 대한 범·규칙 .....	57
2)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주요 활동 .....	62
3.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과제 도출 .....	64
1) 홍성군 농업·농촌 및 농업기술센터 현황 검토 .....	64
2) 과제 도출 .....	65

4.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제시 1. 지역특화작목 육성 .....	67
1) 지역특화작목 육성 개요 .....	67
2)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례 .....	71
3) 홍성군 특화작목 대상 검토 .....	78
4) 홍성군 특화작목 육성전략 .....	92
5.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2-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구축 .....	96
1) 농업인 커뮤니티조직의 개념 및 필요성 .....	96
2)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관련 사례 .....	98
3) 농업인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육성 계획 .....	101
4) 농업인 커뮤니티조직 활용방안 .....	102
6.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3- 농업농촌 서비스 플랫폼 역할 강화 .....	104
1) 농업농촌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 및 제공 서비스 .....	104
2) 농업서비스 플랫폼 사례 .....	105
3) 농업서비스 플랫폼 운영 계획 .....	108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	112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113

##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의 변천과정 .....	7
<표 2-2> 시·군 농촌기술센터 설치 현황 .....	10
<표 2-3> 충청남도 특화작목시험장 현황 .....	10
<표 2-4>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농정방향 .....	13
<표 2-5>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	14
<표 2-6> 농가 부채현황 .....	16
<표 2-7> 농업인 공동이용 사과주스 플랜트 현황 .....	22
<표 2-8>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2008) 주요내용 .....	24
<표 2-9>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 정책프로세스 .....	25
<표 2-10> 건강밥상 꾸러미 개요 .....	26
<표 3-1>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특징 .....	37
<표 3-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	39
<표 3-3> 창업 지원 관련 지역 유관기관 .....	42
<표 4-1> 홍성군 연도별 인구 현황 .....	47
<표 4-2> 홍성군 연령별 인구 현황 .....	47
<표 4-3> 홍성군 인구 이동 현황 .....	48
<표 4-4> 홍성군 경지면적 현황 .....	48
<표 4-5> 홍성군 농업 가구 및 인구수 현황 .....	49
<표 4-6> 홍성군 부류별 생산현황(2014) .....	50
<표 4-7> 홍성군 식량작물 생산 현황 .....	51
<표 4-8> 홍성군 채소류 생산현황(2014년) .....	52
<표 4-9> 홍성군 가축사육현황 .....	53



<표 4-10> 홍성군 5대 품목 생산 현황 .....	54
<표 4-11> 홍성군 친환경인증 현황 .....	55
<표 4-12> 홍성군 GAP인증 농가 현황 .....	56
<표 4-1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무 .....	58
<표 4-14> 농업기술센터 사무의 세부적 범위 .....	59
<표 4-15> 2015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주요 성과 .....	62
<표 4-16> 2016년 홍성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	63
<표 4-17> 지역특화작목의 기본 조건 .....	67
<표 4-18> 지역특화작목의 차별화 요소 .....	68
<표 4-19> 지역특화작목의 차별화 유형 .....	68
<표 4-20>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 .....	70
<표 4-21> 문경오미자 육성 관련 사업실적 .....	72
<표 4-22>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 지원프로그램 추진현황 .....	73
<표 4-23> 문경 오미자산업 구성주체의 역할분담 체계 .....	74
<표 4-24> 논산 딸기 관련 사업추진 실적 .....	76
<표 4-25> 논산 딸기산업 구성주체의 역할분담 체계 .....	77
<표 4-26> 홍성군 농협별 딸기 취급액(2009 ~ 2013) .....	80
<표 4-27> 홍성군과 논산시 딸기 출하처 및 단가 추이(2009 ~ 2013) .....	82
<표 4-28> 전국 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2000 ~ 2013) .....	83
<표 4-29> 홍성군 배추 출하처 별 물량 추이(2009 ~ 2013) .....	85
<표 4-30> 홍성군 농협별 판매 단가 추이(2009 ~ 2013) .....	89
<표 4-31> 냉이 kg당 판매단가 연별 추이 .....	91
<표 4-32> 홍성군 농협별 냉이 취급 물량(2009 ~ 2013) .....	91
<표 4-33> 홍성군 농업인 상담소 현황 .....	97

# 그림 목 차

<그림 2-1> 농촌지도사업 조직도 .....	8
<그림 2-2> 외부 환경분석(PEST)결과 .....	20
<그림 2-3> 문경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체계 .....	22
<그림 2-4> 미국 Maryland 대학교 연구-지도-교육 연계체계 .....	29
<그림 2-5> 일본의 농촌지도사업 수행체계 .....	31
<그림 2-6> Wageniegen UR의 매트릭스 조직구조 .....	33
<그림 2-7> 네덜란드 DLV의 조직체계 .....	33
<그림 3-1> 농촌지도사업 비전 및 목표 .....	35
<그림 3-2>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업 체계의 장점 .....	38
<그림 3-3> 새로운 중간지원조직 형태인 혁신연계조직 .....	41
<그림 3-4> 창업 지원 단계별 유관기관 현황 .....	43
<그림 4-1>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과제 도출 .....	66
<그림 4-2>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육성을 위한 추진 프로세스 .....	69
<그림 4-3> 정부의 딸기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14.06) .....	79
<그림 4-4> 충청남도 딸기생산 면적 비교 .....	79
<그림 4-5> 홍성군 농협조직 딸기 월별 취급량 추이(2009 ~ 2013) .....	81
<그림 4-6> 충청남도 배추생산 면적 비교 .....	84
<그림 4-7> 홍성군 농협조직 배추 월별 취급량 추이(2009 ~ 2013) .....	86
<그림 4-8> 전국 감자 생산량 및 생산액 추이(2005 ~ 2012) .....	87
<그림 4-9> 감자품목 유통경로(aT Kamis) .....	87
<그림 4-10> 충청남도 감자생산 면적 비교 .....	88
<그림 4-11> 홍성군 농협조직 감자 월별 취급량 추이(2009 ~ 2013) .....	89

<그림 4-12> 출하처 유형별/도매시장별 판매물량 .....	90
<그림 4-13> 홍성군 특화작목 육성 기본방향 .....	92
<그림 4-14> 지역특화작목 전국 브랜드화를 위한 핵심요소 연계 .....	93
<그림 4-15> 특화품목 생산자 연구회의 주민 주도적 학습 체계 .....	94
<그림 4-16>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을 통한 주민 수요전달체계 개념도 .....	96
<그림 4-17> ABICO의 사업구조 .....	99
<그림 4-18> 함양군의 농업인 자기주도 학습 조직 형성 .....	100
<그림 4-19> 집단학습을 통한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육성 체계도 .....	102
<그림 4-20>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활용 계획 .....	103
<그림 4-21> 농업·농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103
<그림 4-22> 농가의견을 통한 과제발굴 .....	104
<그림 4-23> 농업 서비스 플랫폼 개념 .....	104
<그림 4-24> 경상북도 사과 빅데이터 농업서비스 개념도 .....	106
<그림 4-25> 농사로 홈페이지 화면 .....	107
<그림 4-26> 일자리 직거래 플랫폼 '푸마시' 서비스 개요 .....	108
<그림 4-27> 기상청 날씨정보 및 aT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	109
<그림 4-28>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	109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농업과 농촌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역할은 농업인 교육,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기술보급,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육성,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등이 있어 왔다. 하지만 농업 비중 악화, 농업부문의 취업자 수 감소, 농가수의 감소로 농업기반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미션과 역할도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은 지역농업인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의 정책방향 및 지도 역량은 지역 농업의 역량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세계일류 농식품R&D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지방 농촌지도기관 지원으로 돈 버는 농업,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1)</sup> 특히, 전통적인 농업생산 뿐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관광, 농산물가공 사업등으로의 농업인의 사업다각화는 기존의 농가지도의 방향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국민경제 중 취약분야라고 여기어 지는 농업을 고도화 시키려는 노력이 가속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농업인 및 농촌마을을 지원하려는 중간지원조직도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존의 행정과 지도만으로는 농업인 역량강화와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인 이외에도 새로운 취농인,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지역소상공인과의 연계 등 그 대상범위도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

1) 희망제작소(2015), 6차산업 수익모델 성과분석 및 코디네이터 역량 개발 정책 연구용역, 농촌진흥청.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업과 농촌을 하나의 낙후된 자원과 지역으로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원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범위는 확대되고 타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업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 기술문화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의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적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재정립이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 및 여건에 맞춰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인 교육, 농업기술 보급 등 농촌지도사업에서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농업농촌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는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사례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및 추진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럼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진 본연의 미션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재검토 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생산기술을 보급할 수 있고, 다기능 농업 및 농업의 6차산업화, 고부가가치화 등의 시대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본 연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변화과정과 함께, 현재 농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주요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과거의 농촌지도사업의 절대적인 미션이었던, 식량자급률 확보가 농촌다움 자원 보존 및 활용(어메니티자원 보존), 농업의 다기능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과학기술 및 ICT 적용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농촌지도의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의

직렬사항이 지방자치단체화 됨으로서 오히려 행정전달체계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형 협력이 중요해 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 다양하게 육성되고 활용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창업기능강화, 농촌지도사업프로세스 혁신 등,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착안한 이슈들은 현재 농촌지도사업과 연계 활용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향후 지역의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체계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농촌의 혁신사례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의 향후 방향 및 과제를 다시금 재검토한다.

셋째, 홍성군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농촌지도 기능이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주민 커뮤니티 초직육성 및 연계, 농업농촌서비스 플랫폼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 미래적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제2장 농촌지도사업 여건 분석

### 1. 농촌지도사업 개념 및 변화

#### 1) 농촌지도사업의 개념

농촌진흥법(2015)에서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농업후계인력 및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그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농촌지도사업은 크게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연구사업**은 작목에 따른 재배기술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생리장애, 기온변화 등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으로 우수품종 선발 및 품종별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 해당지역에 적합한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을 확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도사업**은 연구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농업기술을 실수요자인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촌지도사업의 주 내용은 식량 자급자족과 식량증산을 위해 선진 기술 보급과 우량종자 공급으로 수확량 증대에 기여하고 육묘 및 농사관리법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과 각종 병해충 및 잡초 방제를 위한 농약선택 및 각종 병해충 정밀진단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등 유통과 같은 이른바 6차산업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며, 농가경영개선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 2) 농촌지도사업의 변화 과정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이 최초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것은 1957년 2월 12일 공포된 농사교도법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62년 농촌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농촌지도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2) 그러나 지난 문민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1995년에 농촌진흥법을 개정하여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었으며, 1997년에는 지방 농촌진흥기관 소속 연구 및 지도 공무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그 신분을 변경시켰다. 그로 인해 지방 농촌지도기관의 인사·재정·감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갔다.

1960년대 한국의 농촌은 국민식량이 절대 부족한 시기였으며,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먹거리 생산을 통해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였다. 이를 위해 1962년 농촌진흥청이 발족되었다. 1970년대에는 다수확품종(통일벼)의 보급을 통해 식량자급 달성(녹색혁명)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비닐하우스 기술 보급에 앞장서 4계절 신선채소의 생산이 가능해졌다(백색혁명). 1990년대에는 주곡자급 및 품목별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통한 식량증산과 농업기술의 발달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한 이후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국제간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투자에 비해 생산성 증대가 미미한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 보다 다른 2, 3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익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정책당국자들의 계산에 따라 보급 사업에 대한 투자도 감축하였고, 그 동안 타성적으로 추진하던 증산일변도의 사업방식이 더 이상 소득과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영 개선이나 판매지도 등과 같은 기술보급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7년의 지방화 이후, 지역실정에 맞는 지도사업의 전개를 기대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첫째, 식량자급, 환경보전 등 국가기능으로써 지도사업이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자치단체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지도사업에 대한 지원정보 및 위상이 달라져 지방자치단체간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셋째, 국가직 일 때보다 영농현장 방문 등 지도활동이 약화되었다. 넷째,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

2) 김만수(2011). 경기도 농촌지도사어브이 통합과 과제. 건국대학교 축산학 박사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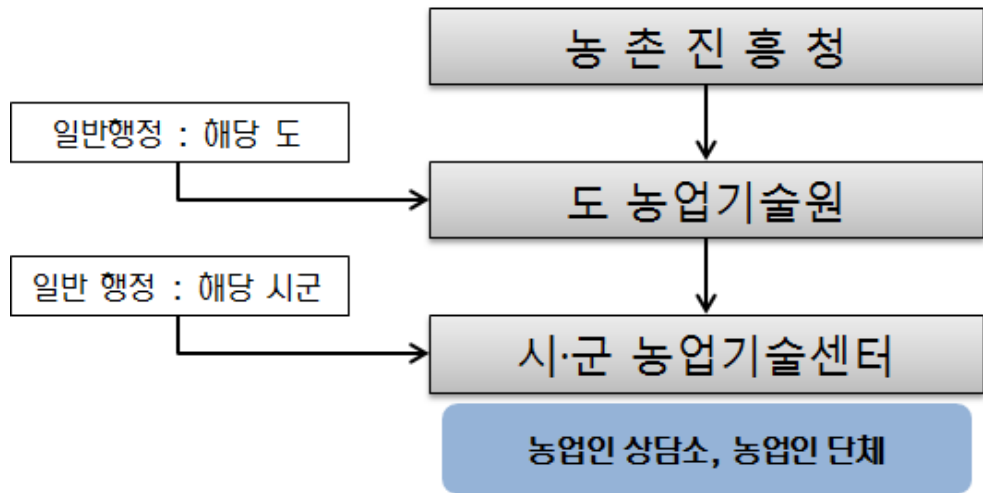
1981년 7,979명에서 1997년 6,839명으로 15%가 감축되었으며, 그 이후 공무원 1,2차 구조 조정으로 전체 공무원은 19%가 감소되었으나 농촌지도직은 25%나 감소되었다. 다섯째, 일부지역에서는 농업행정과 지도사업의 통합으로 인하여 농촌지도사업의 기능과 역할에 제한 부분이 불분명해지고 소장의 경우 지도사업보다 예산 규모나 책임성이 크게 부과된 농업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의 변천과정

시대 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Ⅰ 期(식량증산)			Ⅱ 期(개방화대응)	Ⅲ 期(지방화)
조직 체계	중앙	농촌진흥청발족('62) 지도국		지도국, 기술보급국('73) ('73공보관실)('78경영관실)	기술지도국('94) → 기술지원국('99)	
	도	농촌진흥원('62) 3과(사무/지도/시험과)		지도국 신설('70)		지방직화('97) 농업기술원('98)
	시·군	농촌지도소('62) 3계(지도계, 기술계, 개발계) 지소설치('63) 3~4읍면→전읍면('75) 기술담당관제('76)			지소통폐합('89) 2~3과설치('90) 상담소설치('92)	지방직화('97) 농업기술시군 기술센터('98) 상담소감축('98)
기능 역할		식량자급달성(녹색혁명) - ('65)289 → ('77)494kg/10a - 통일벼 보급률 : 75.5% 4-H,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 육성 응용영양사업 등 식생활개선			UR대응 경쟁력제고('89) 비닐농법보급(백색혁명) 농업기계화 및 생력화 농업후계인력 육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역농업개발 품질고급화 수출농업 특산물상품화
지도 방법	접촉 방법	영농현장 농업인 대면 접촉				
		시범사업을 통한 거점농가 접촉				농업인시군기술센터방문
	전달 방법	통보기, 리후렛, 벽보 라디오농가방송('62) 동계영농기술교육('69)			시범사업, 신문·방송 겨울농민교육('90)	언론홍보, 사이버지도 연중수시교육
	지도 장비	자전거('67), 오토바이('71) 영사기			오토바이/승합차('88) 슬라이드, 비디오	승용차, 노트북 핸드폰

자료 : 농촌지도사업 발전기획단(2002), 농촌지도사업 발전기획단 운영 경과보고 자료를 인용함

농촌지도사업의 지방직화 이후 농촌지도조직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농촌 지도 조직은 일반 행정조직에 준하여 중앙단위에 농촌진흥청, 도 단위에 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3단계로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3개 기관의 수직적 구조외에 도 농업기술원은 해당 도의 통제를 받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시·군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림 2-1〉 농촌지도사업 조직도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일원화 되지 않은 혼돈스러운 체계로 보일 수 있지만, 네트워크가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농촌지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횡과 종의 네트워크 중심으로서의 역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즉, 중앙과 지방을 매개하고, 지방의 행정과 지도를 매개하는 조직으로서의 농업농촌과 관련된 기능과 활동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3) 농촌지도조직 현황

농촌진흥청은 지역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9개 도에 농업기술원을 설치하였으며 특·광역시에는 8개소의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각 시·군별 농업기술센터는 148개소로 총 156개소의 농촌기술센터가 있으며, 시·군단위중 13개 시군은 농업기술센터가 미설치 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은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하남시, 오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등 11개소이며, 전라남도도 목포시, 울산광역시도 울주군이 농업기술센터가 미설치되어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총 148개소가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8개의 도농복합시와 7개 군에 총 15개소의 농업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은 전국에 4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충청남도의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은 부여군에 과채연구소, 논산시에 논산딸기연구소, 예산군에 화훼연구소, 태안군에 양념채소연구소, 금산군에 인삼약초연구소, 청양군에 청양구기자시험장 총6개의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다.

〈표 2-2〉 시·군 농촌기술센터 설치 현황

구분	농업기술센터 설치					
	계	도농복합시	군	일반시	행정시	특·광역시
계	156	54	81	9	4	8
경기도	20	12	3	5	-	-
강원도	18	4	11	3	-	-
충청북도	11	3	8	-	-	-
충청남도	15	8	7	-	-	-
전라북도	14	5	8	1	-	-
전라남도	21	4	17	-	-	-
경상북도	23	10	13	-	-	-
경상남도	18	8	10	-	-	-
제주특별자치도	4	-	-	-	4	-
서울특별시	1	-	-	-	-	1
부산광역시	2	-	1	-	-	1
대구광역시	2	-	1	-	-	1
인천광역시	3	-	2	-	-	1
광주광역시	1	-	-	-	-	1
대전광역시	1	-	-	-	-	1
울산광역시	1	-	-	-	-	1
세종특별자치시	1	-	-	-	-	1

자료 : 농촌지도사업보고서(2015). 농촌진흥청

〈표 2-3〉 충청남도 특화작목시험장 현황

시험장명	위치	설립년도	연구작목	비고
과채연구소	부여	1994	토마토	
논산딸기시험장	논산	1994	딸기	
화훼연구소	예산	1994	국화	
양념채소연구소	태안	1992	백합, 마늘	
인삼약초연구소	금산	2005	인삼, 약초	
청양구기자시험장	청양	1992	구기자, 약초	

자료 : 농촌지도사업보고서(2015). 농촌진흥청

#### 4) 농촌지도조직의 주요 이슈

농촌지도사업의 지방직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도사업의 계획 및 추진이 가능해져 농업인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으나 지방화 이전보다 오히려 지도서비스의 수준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7년 지방직 이후 농촌지도조직은 행정조직의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 즉 업무의 성격이 행정업무가 많거나 일부가 되어서 주요 행사시 인력동원이나 잡다한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우리나라에서는 1개의 시·군당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나 행정기관과 통합된 시군이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폐지되어 없어진 시군도 13곳이나 되어 농촌지도사의 직무가 1997년 지방직 이후 각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지방화 이후 시군기술센터의 활동이 농업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와 지자체의 업무 지원에 대거 동원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방화 이후 소속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하에 지역특화에 성공하여 발전하는 지방지도기관과 그렇지 못한 지도기관 간에 기능 활력화의 중요 요소인 인력 및 예산 확보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송기진(2003)의 농촌지도사의 지방직 이후 직무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직 이후 업무의 변화를 보면 농촌지도사 본연의 업무 중 지역특산물 육성 26.2%, 농업인 요구 반영 10.5%인 반면 단체장의 공약사항 추진 35.9%, 군청 행사 참여 19.5%, 농업시책추진 7.1%로 농업기술센터가 군청의 외청 임에도 자치단체장에 따라 그 직무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지도사 직무에 대한 물음에서는 본연의 농촌지도사 업무는 62.9%로 아직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사가 많지만 37.1%는 공원 가꾸기, 세금 징수 등 행정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업무 병행 추진에 대한 문제가 보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 및 결정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소장(원장)이 43.1%, 담당이 18.7%,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이 11.6%,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결정이 11.6%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도

3) 송기진(2003). 농촌지도사의 지방직 이후 직무변화에 관한 연구.충청남도를 사례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4) 송기진(2003). 전제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지원 직무에서의 문제점은 첫째로 본연의 농촌지도사업 보다 자료작성 등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도기획담당에서 주로 추진해야 할 직무는 지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맞게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여야 되는데, 군수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행사 준비 등 지방직 이후 각종 자료작성에 많은 인력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생활개선 업무가 행정에서 진행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전개에서 지원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사업의 차이가 현장에서 모호해짐에 따라 각각의 직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과 농정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클 수 있다. 왜냐하면, 한번의 정책사업만으로 지역의 농촌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는 이루어 질수 없기에, 마스터 플랜은 지역농촌지도기관에서 담당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정적 사업은 중앙의 사업에서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즉, 기존의 농촌지도기능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증식이라는 목표라는 것에 한정되어서 정해졌다면, 지금의 농촌지도기능은 지역적 이슈와 관심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창기의 개념과는 벗어난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어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즉, 지역이라는 틀 안에서의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요구조건, 그리고 기존 사업적 관행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의 농촌지도사업의 큰 화두가 되는 것이다.

## 5)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지금의 농정은 농업생산 위주의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경제를 다각화하는 정책위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OECD(2006년)는 농촌발전 전략 가이드라인 채택을 통해 농림업의 경쟁력강화, 농촌지역 환경 및 토지 관리,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의 다각화, 농촌개발 정책의 상향적 추진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 개발 및 농촌관광 활성화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촉발되기 시작했다.

즉, 농촌에 대한 다양한 시각(생활공간, 경제공간, 환경공간 등)과 주민 역량 개발, 목표의 통합성과 차별성, 경제 활동의 다양화, 사업지역과 현장 밀착성 등 새로운 수단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농촌지도사업 영역도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효율성·경쟁력 강화 목적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농업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특성, 지역주민의 참여 및 책임을 통한 새로운 농정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표 2-4〉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농정방향

구 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농정목적	효율성·경쟁력	효율성 및 농업인 행복 동시 추구
농정대상	개별 경영체 중심	지역공동체 중심
정책내용	농업·식품의 개별 분산적 접근	생산과 융·복합한 6차 산업
접근방법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지역특성, 지역주민 참여 및 책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2. 국내 농업 외부환경 분석

DDA, FTA, TPP 등 범세계적 시장 통합의 가속화, 농업의 식품, 서비스 등 영역확대, 산업기술과 융·복합화 가속 등 국내외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지도사업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의 환경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 분석을 통해 산업의 방향과 의사결정 방향을 파악하는 외부환경 분석 기법인 PEST 분석을 통해 국내 농업의 여건을 파악하고 농촌지도사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정치적 환경 : Political

### (1)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

세계무역기구(WTO)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 어젠다)를 통해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주도로 한 환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TPP에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TPP를 주도하는 미국 및 주변국과의 통상 전략상 TPP 추가 가입할 확률이 높다. FTA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15건이 발효되었으며, 타결이 1건, 협상진행중이 5건 으로 FTA체결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표 2-5〉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진행단계	건수	대상국/지역
발효	15건	칠레, 싱가포르, EFTA(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ASEAN 10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 페루, 미국, 터키(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타결	1건	터키(서비스, 투자협정)
협상진행	4건	한중일, RCEP(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중미(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에콰도르SECA, 이스라엘
협상재개, 여건조성	4건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GCC(GCC 6개국 :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협상준비, 공동연구	2건	MERCOSUR(MERCOSUR 5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내용 참조(2016. 07. 15. 기준)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산으로 곡물은 물론 축산물, 과일류 등 다양한 농산물이 수입되어 우리나라 농산업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농산업 분야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 (2)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등 국제협약으로 유전자원 및 신품종 중요성증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는 음원, 소프트웨어, 디자인, 신기술 특허와 마찬가지로 식물의 종자 및 신품종, 유전자원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가 중심이 되어 1968년 창설된 단체이다.

현재 74개국이 UPOV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에 가입하였다. UPOV의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보호 품종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UPOV의 협약 등 식물의 신품종 및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 인정으로 외국 품종을 이용할 경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신품종 개발과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2) 경제적 환경 : Economic

### (1) 농가 부채 증가

연도별 전체 농가 부채는 2010년 32조원, 2011년 30.3조원 2012년 31.4조원, 2013년 31.2조원, 2014년 31.3조원 규모로 2010년 대비 2% 감소하였고, 부채 농가호수도 2010년 117만 7천 호에서 2014년 112만 1천호로 약 4.7% 감소하였으나, 농가 1호당 평균 부채액은 2010년 2,721만원에서 2014년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농가부채액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6〉 농가 부채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농가전체부채(조원)	32.0	30.3	31.4	31.2	31.3
호당 부채(천원)	27,210	26,035	27,262	27,363	27,878
농가호수	1,177	1,163	1,151	1,142	1,121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지역별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2014년 1호당 제주지역이 5,455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충남은 2,687만원으로 제주, 경기,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증가와 농기계,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장기적 경기 불황과 소비 침체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현재 경기는 수요 부족으로 산업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과잉공급능력이 심화하는 장기 불황 국면에 있다”고 밝힘

2016년 6월 기준으로 수출은 1년 전보다 6% 감소하여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도 기준치 보다 아래로 떨어져 제조업의 경우 생산증가율과 가동률 등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출하와 재고가 모두 감소하는 재고 조정 국면에 있으며, 서비스업도 생산증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하였다(2016년 6월 기준).

### 3) 사회적 환경 : Social

#### (1)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 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보장성 부담은 늘어나는 원인중 하나로 낮은 출산율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19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도시지역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 인력감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소비성향을 바탕으로 온라인 소비 증가, 소포장 판매 증가, 1인용 가전제품 증가 등 새로운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 (2) 스마트 라이프 확산 및 SNS의 사회 전반적 영향 확대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83%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스마트 기기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임을 볼 때 보급률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보급률과 함께 소셜미디어, SNS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 간의 커뮤니티가 활발해 졌으며 SNS를 통한 정보의 확산효과 및 빠른 반응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중요해 지고 있다.

농촌에서도 SNS 및 블로그를 활용하여 직거래 및 체험 프로그램 홍보, 소비자와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3) 안전·안심 먹거리 수요 증가

최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쉬워지면서 소비자들의 인지수준이 향상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웰빙에 대한 관심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소비자 특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규제 마련이 활발해 졌으며, 식품 업계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원자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상품 개발이 증가하였다.

#### 4) 기술적 환경 : Technological

##### (1) IOT 기술 발전으로 인한 스마트 농업 환경 구축 : 농업 ICT 도입

IOT(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은 생활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IOT는 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농업 분야에도 최근 활용되기 시작했다.

IOT를 시설하우스에 적용하여 시설 내부의 온도, 습도, 광량 등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자동으로 시설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이 최근 확산되는 추세이다.

일본의 채소회사 스프레드의 경우 시설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뿐만 아니라 파종, 시비, 수확을 센서 정보를 통해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2017년 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2) 농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Big Data)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으며,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각종 센서를 통한 농업 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후 및

습도·온도 등 시설 내·외부 환경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SNS 등으로부터 생산 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 및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여 효율적으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

## 5) 외부 환경분석(PEST)에 관한 시사점 도출

### (1) 특화작목 육성 및 신품종 개발을 통한 시장개발에 대한 대처 필요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필요하며 각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통해 품목 쏠림 현상을 피하고 농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신품종 개발을 통해 해외 종자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종자 수출 및 로열티 수익으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 (2)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확산 필요

최근 농업 분야에 ICT를 적용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토질, 온도, 습도 등 농업환경을 센서를 통해 체크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으로 시설하우스를 제어하는 스마트팜 기술의 개발과 빅데이터의 농업적용 등 다양한 스마트 농업기술이 개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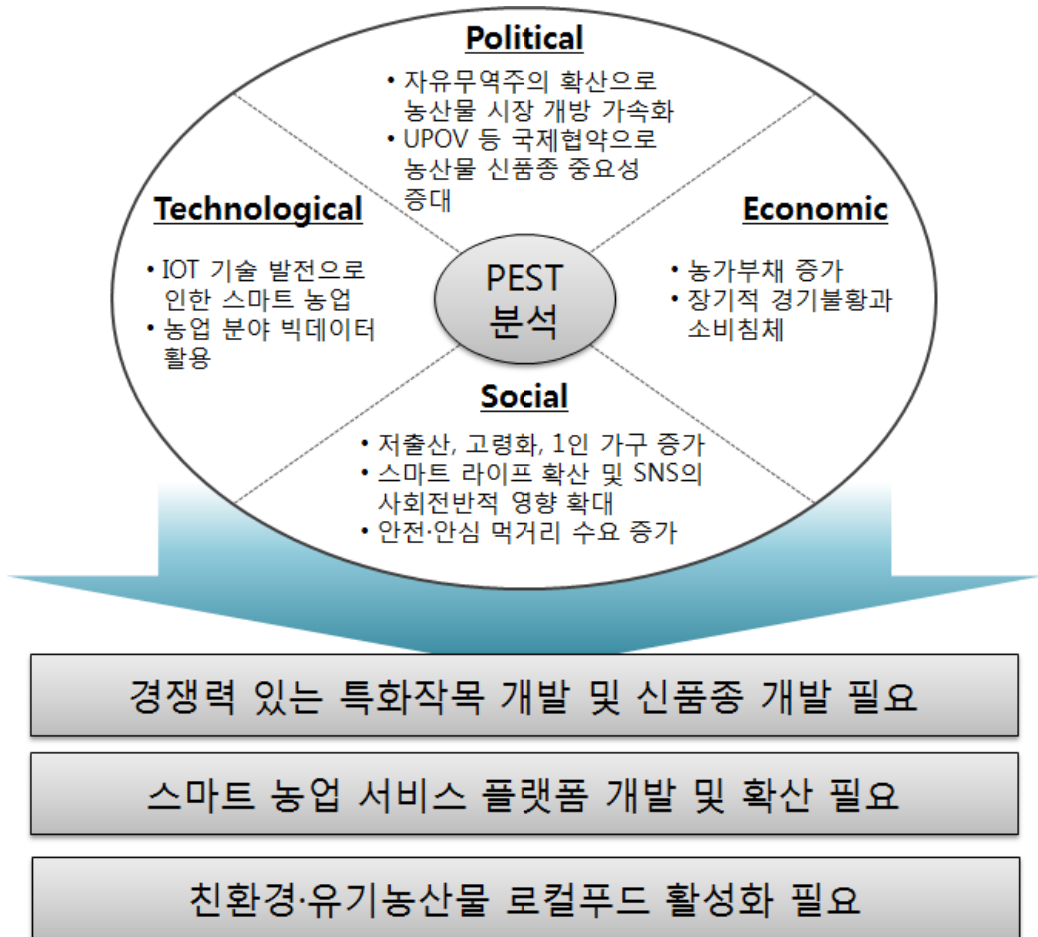
이러한 IOT기반 스마트 농업기술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해 농업환경 정보제공, 재해 및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 방법 제시, 농업 인력 수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3) 친환경·유기농산물 로컬푸드 활성화 필요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 로컬푸드는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 하고 농촌

지역의 고령농 및 영세농들은 유통단계가 줄어들어 기존의 농업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지역은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지역에서 소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2〉 외부 환경분석(PEST)결과



### 3. 국내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기관 우수 사례 검토

#### 1) 문경시 농식품특성화센터 운영(농식품 특성화 사업)

##### (1) 사업배경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재배작물을 지원하기보다 산악지형을 이용해 재배되는 사과, 오미자, 표고버섯, 산채 등 4개 작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작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공과 유통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와 농업인을 위한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경시는 주요 특산물인 사과와 오미자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수입증대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가공지원과 창업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농업의 구조가 1차 생산품만을 가지고 농가소득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가공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리고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과거 가공산업이 생활개선편야로 진행되었으나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2006년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별도로 만들고, 기술개발을 하면서 가공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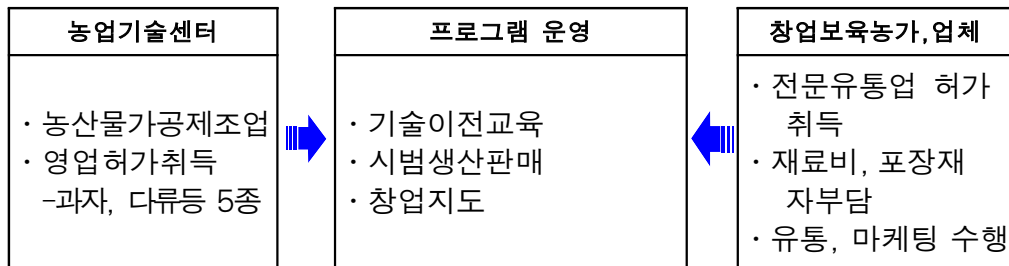
##### (2) 사업 운영현황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가공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부에는 농산물 가공개발시설(일반가공개발실, 크린실, 원료실 등)을 조성하여 가공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창업보육을 위한 소규모 생산 플랜트(과일가공 주스, 오미자 가공, 분말 플랜트 등)를 조성하여 문경시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 보육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가공 R&D를 위해서 석사급 연구원을 채용하고, 경북대 식품공학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가공기술을 확보해 나갔다.

문경시는 이러한 기반 시설조성을 바탕으로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하였다. 문경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개발된 가공기술은 센터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가공업체 및 농가에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술센터는 창업에 대한 검증과 창업보육교육을 하고 있다. 농업인이 생산 - 가공- 유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사과재배농가는 3년, 오미자를 포함한 기타작목재배농가는 1년간 창업보육교육을 받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시비(지방예산)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보육 교육을 바탕으로 2012년 기준으로 일반품목 9개 농가와 사과농가 22개 농가가 창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림 2-3〉 문경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체계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브랜드를 개발 상표등록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파워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은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공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전문 가공판매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표 2-7〉 농업인 공동이용 사과주스 플랜트 현황

시설현황	주요시설
389㎡ (과육 채취기 외 21종), 생산용량(시간당 3톤)	사과주스 생산실, 입출고실, 제품실, 위생실, 하부시설

또한 문경시는 농산물가공사업장을 육성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 및 가공사업 지원을 전개하여 2008 ~ 2009년 까지 총 19개소의 농산물 가공사업장을 지원하였다.

## 2) 완주군 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례

### (1) 사업배경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단일작목 중심의 규모화농 육성이라는 농업구조개선에 몰두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소농, 고령농은 정책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으며, 농가간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완주군은 영농지역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령농 및 겸업농을 지역전체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완주군은 5,000가구에 이르는 1ha미만의 가족소농, 고령농, 겸업농들을 조직화하여 로컬푸드 틈새시장 개척의 주역으로 삼아 농촌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 정책을 구상하였다.

### (2) 사업운영 현황

완주군 지역농정혁신의 중장기전략은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로 생산혁신, 유통혁신, 부채대책, 농촌활력증진, 노인복지증진 등 5개분야 12개 시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2-8〉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2008) 주요내용

5대 정책	정책목표	세부 지역농정혁신 시책
생산혁신	생산비 절감 친환경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한우 경쟁력 동반강화 대책</li> <li>- 경종·축산간 지역자원 물질순환시스템 구축</li> </ul>
유통혁신	소농 3천농가 월1백만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적인 로컬푸드 실현</li> <li>- 10년 내 지역농산물 30%이상 로컬푸드 유통</li> </ul>
경영혁신	기금 100억원 부채농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 경영실태조사</li> <li>- 무이자 경영회생자금지원 및 맞춤형컨설팅 지원</li> </ul>
활력증진	마을회사100개 농업6차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거점 마을 회사 100개소 육성</li> <li>- 도농교류 거점마을 육성 및 상호연계</li> </ul>
복지혁신	현장맞춤 복지 생산적 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노인복지 종합지원시스템 구축</li> <li>- 8272 생활민원기동반 지원</li> <li>- 생산적인 복지서비스(두레농장) 제공</li> </ul>

자료 : 완주군, 약속프로젝트 추진 5개년 계획, 2008

로컬푸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고, 가족소농이 조직화의 핵심주체가 되므로 기존의 상업농 영역과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기반하여, 완주군은 로컬푸드 통합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로컬푸드 통합 추진전략은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상업농과 협력 및 보완을 통해 지역농업 전반에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 영역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통합추진 전략은 로컬푸드 생산·유통·소비를 조직화하고 추진조직 정비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정책프로세스를 통해 수립되었다.

〈표 2-9〉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 정책프로세스

구분	정책명	세부내용	비고
정책 목표	조직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가족소농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 - 0.5ha미만 농가3,412농가(1차)</li> </ul>	※ 장기적으로 1ha미만농가 참여 ※ 상업농과 협력·보완 관계 초기단계 분리대응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소득 1백만원 보장 (로컬푸드를 통한 소득증대분)</li> </ul>	※ 완주 새벽시장 참여농가 : 연평균 소득 1,000만원 기준
정책 수단	기획생산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농식품 기획 생산 - 100품목의 연중기획생산 - 작목반, 마을, 지역공동체</li> <li>농민가공 활성화 - 마을공동사업형 가공산업 육성 - 거점농민가공센터 설치, 운영</li> </ul>	마을 및 품목단위 가족소농의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량의 규모화 및 효율적인 생산관리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확보(틈새, 공공) -건강밥상꾸러미/로컬푸드스테이션/ 전문매장/직거래장터/공공조달</li> </ul>	※ 건강밥상꾸러미, 로컬푸드 스테이션 1차 추진관계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형 통합물류체계 구축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 제3섹터형 농업회사법인</li> </ul>	2011년 중 봉동읍 율소리 설치완료
추진 조직 정비	민간	완주로컬푸드영농법인 '건강한밥상'	2010. 5. 발족/마을공동체 대표로 이사회 구성
	중간지원조직	지역경제순환센터 내 '로컬푸드팀'	현장 조직화 지원조직
	관(행정)	농촌활력과 내 로컬푸드 담당	2010. 8. 농촌활력과 신설
제도 정비	관련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주군 로컬푸드 조례, 시행규칙</li> <li>완주군 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li> </ul>	


자료 : 강성욱(2011). 완주군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례

또한 완주군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을 추진하였다. 건강밥상꾸러미 사업은 완주의 생산자와 전주권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CSA(지역사회지원형농업)모델로 지역에서 난 제철먹거리를 꾸러미 형식으로 꾸려 일반 소비자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주권 소비자 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건강한밥상은 완주군 2개 읍, 11개 면의 개별 생산농가와 마을의 대표자가 출자해 2010년에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조합원 및 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법인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 중인 리더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행정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표 2-10〉 건강밥상 꾸러미 개요

건강밥상 꾸러미(예시)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주형 CSA모델(건강밥상 꾸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공급계획을 세워 제철에 나온 280여 품목 공급</li> <li>- 격주(월 2회), 매주(월4회) 꾸러미 중 선택 가능</li> <li>-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신청</li> <li>- 알뜰 꾸러미(독신자, 자취생 등), 아름 꾸러미(일반가정), 효도 꾸러미(기능성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노인) 3가지 꾸러미 상품 구성</li> <li>- 직배 또는 택배방식(택배비 건강밥상 부담)</li> </ul> </li> <li>• 완주로컬푸드영농법인 '건강한 밥상'에서 추진</li> </ul>

## 4. 해외 농촌지도 사업의 사례

### 1) 미국의 농촌지도 사업

미국은 1862년 Morrill법을 제정하여 주립대학에서 시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Land Grant System을 도입하였다. 그 이후 주립대학 내에 농업시험장을 설치하였고, 1914년 Smith-Lever법을 신설하여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련된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은 주립대학에서 학생교육은 물론 연구와 지도 등 3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농업연구와 지도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농업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내에 협동연구교육지도국(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 Extension Service: 이하 CSREES)을 두고 주립 농과대학의 농촌지도사업과 시험연구사업 그리고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업연구는 미국 농무성 산하의 연방정부조직인 미국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이하 ARS)이 전담 추진하고 있다. ARS의 주요 임무는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집행의 지원이므로 연구결과와 평가 역시 농업 및 국민을 위한 기여도(impact)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구결과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은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별과제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며, 과제 수행 전에 심도 있는 연구계획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통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개발기술의 기술이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ARS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의 이전을 주요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은 모든 연구자의 의무사항이며,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은 연구원의 업적평가 및 승진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기술이전 수단으로는 학회를 통한 연· 전시회, ARS Research Magazine 등의 홍보 간행물, 민간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전 등이 있다. 특히, 산업체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등) 이전 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 기술이전의 주목적이 ARS의 수익창출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도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ARS는 주로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수행하며, 생산자 단체를 위한 마케팅 서비스는 USDA 산하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ARS의 농업연구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 둘째, 연구비의 재원이 안정적이므로,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으며 고비용의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하며, 기초연구(basic research)와 응용연구(applied research)의 균형을 유지 한다. 셋째, 워크숍 등을 통하여 의회, 농무성, 고객, 협력자, 이해당사자, 과학자 그룹 및 ARS내 연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고객 중심적 특성을 가진다. 넷째, 연구과제는 필수적으로 USDA의 정책목표와 항상 일치하며, 국가적 중대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의회나 농무성의 요구가 있을 시, 세부 연구과제의 내용을 즉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 산하위원회인 CSREES는 미국 연방차원의 전체적인 지도사업 프로그램 수립, 예산지원 및 각 주립대학·시군 지도조직과 연계한 지도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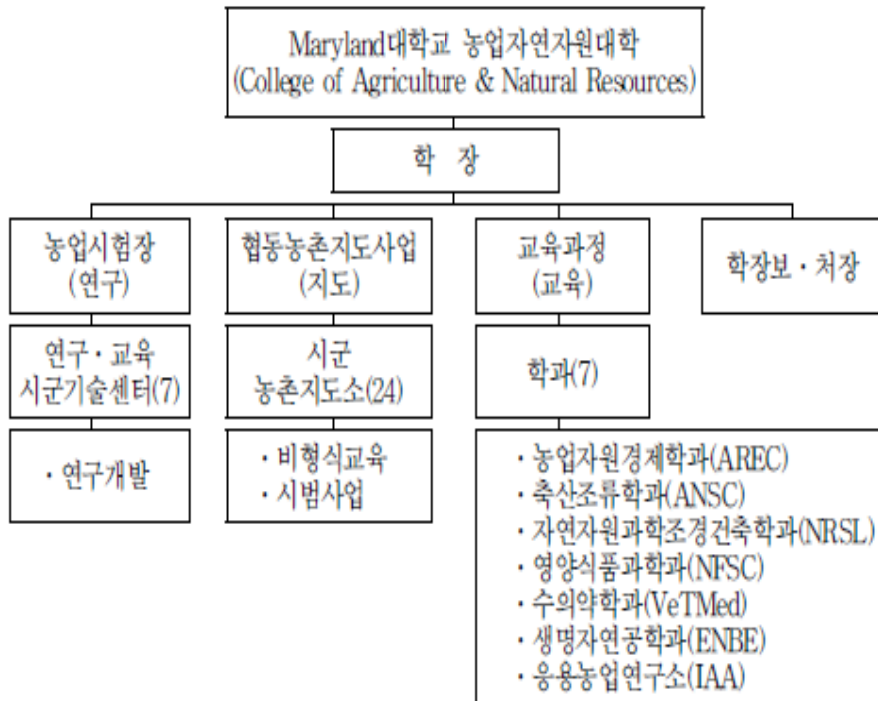
먼저 연방정부는 주립대학(Land-grant University)에 사업비(Fund)를 주면서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지도과제를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도록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각 주와 시군에서는 CSREES와의 공동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지역별 예산을 책정하여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립농과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의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가정관리 강화,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및 지역사회의 개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소득증대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식품의 지속성 촉진, 자연자원과 지역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책임,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복잡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화 시대에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제고 등이 4가지 목표에 해당된다.

시군의 농촌지도센터에서는 주립대학의 농촌지도사업 목표 하에 4H 및 청소년 개발, 농업기술 이전, 지역사회 자원 및 경제개발, 가족개발 및 자원관리, 리더십 및 지원지도자 개발,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 영양, 다이어트 및 건강 관리 등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15~25명 정도로 구성된 농촌지도프로그램 위원회를 구성하여 ①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 제공, ② 프로그램/지도대상의 우선순위 부여, ③ 프로그램 보급 및 평가, ④ 재정적 자원 및 자원지도자 확보 등을 통하여 지역민과 지도사업을 연계하는 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4〉 미국 Maryland 대학교 연구-지도-교육 연계체계

자료 : 김성수 외 2인(2010). 미국,일본,네덜란드 농업연구와 지도체계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최근 미국의 농촌지도사업은 지도 대상과 지도 방식의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농촌지도의 대상은 기존 농업인에서 농촌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대하여 기존 사업영역 외에도 건강, 영양, 수질, 비만, 실내 환경, 공공정책,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4-H는 농촌청소년, 농업 중심에서 일반 청소년, 비농업과의 혼합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연자원 활용, 수질, 영양 등 도시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의 정보화사업(extension)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인터넷 기반의 농촌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2008년부터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연구에 기초한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2) 일본의 농촌지도 사업

1948년 농촌지도사업이 발족된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일찍부터 발달해 왔기 때문에 본래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협동농업보급사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협동농업보급사업은 농촌지도기관에서 시험연구기관과 농업자 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법률(농업개량조장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시험연구 및 보급사업 조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진흥 도모, 농촌의 생활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협동농업보급사업은 농업자와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여 시험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요청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적응실증시험을 통하여 그 기술을 현장의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일체적인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요량으로 지도요원을 시험연구기관에 파견연수를 실시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술보급의 신속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의 농촌지도사업은 농림수산성, 도도부현, 농업개량보급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민에 대한 지도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에 속하는 도도부현과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개량보급센터라고 할 수 있다.



운영함으로써 보급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농촌지도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동(협업)사업으로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급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체와의 연계를 통한 보급사업의 전문화등을 꾀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3) 네덜란드의 농촌지도 사업

네덜란드는 정부주도의 지도사업을 실시해 왔었으나 1993년 10월 농촌지도사업을 민간화하여 농업인단체 주도형의 농촌지도사업 수행체계를 보이고 있다. 민간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 및 생산과잉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정부 재정의 압박과 함께 농가호수 감소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연구는 Wageningen UR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은 국내외의 DLV 지역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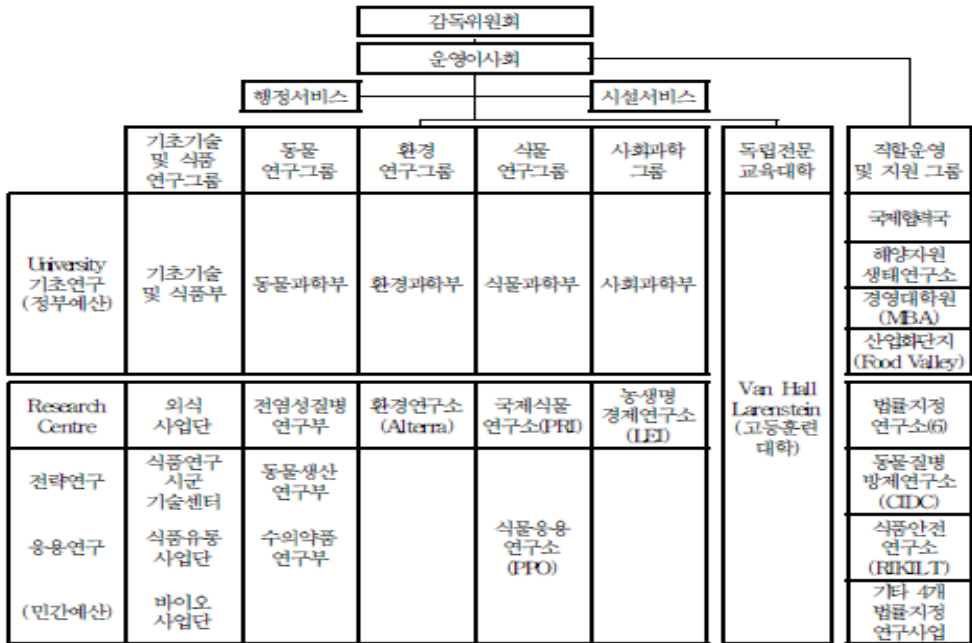
Wageningen UR에서는 영역과 역할에 따른 복합적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구조에서는 현안에 대하여 조직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농촌지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은 DLV(Dienst Landbouw Voorlichting) Advisory Group으로서 25개의 국내외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고, 12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각급단위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 농촌지도위원회(Board)는 9명(회장 1, 농업위원회 대표 4, 농업자연관리수산부 4)로 구성되어 DLV의 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지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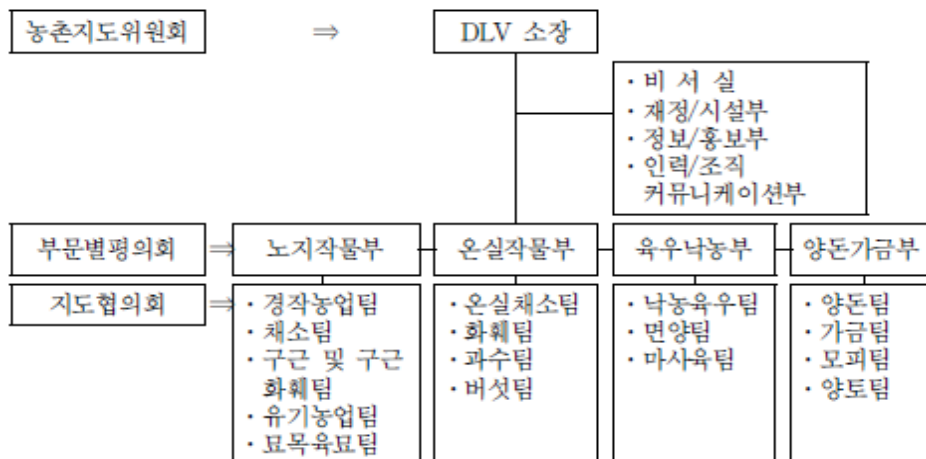
부문별평의회(Sector Councils)는 8명으로 구성되어 부문별 지도과제를 검토하고, 적절한 지도활동에 대하여 조언한다. 지도협의회(Guidance Committee)는 지역단위 농민조직의 대표와 일반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응용연구와 교육과 관련된 조직과의 협력 등 팀의 활동에 관하여 조언한다.

네덜란드 DLV의 지도인력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DLV의 팀은 15~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리더(team leader), 선임전문가(seniorexperts, 경제, 환경), 전문지도기술원(specialists, 건축, 장비, 작물보호, 영양, 저장), 작물전문지도기술원(crop specialists), 일반전문가(allround experts), 사무원(secretariat)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2-6〉 Wageniegen UR의 매트릭스 조직구조

자료 : 김성수 외 2인(2010). 미국,일본,네덜란드 농업연구와 지도체계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그림 2-7〉 네덜란드 DLV의 조직체계

현재 네덜란드의 농촌지도조직은 제2차 조직의 개편(2005년 이후)을 통하여 정부 소유 주식을 직원들에게 양도하여 완전한 민간회사로 전환하였으며, DLV를 DLV Animal, DLV Plant, DLV Belgium로 분리 재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 및 고객중심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자문비용 지불의 정당성에 대해 농업인의 설득과 이해를 도출하였으며, 철저한 자원분석을 실행하였다.

#### 4)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지역적 입장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도사업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농업의 외부적 효과가 중시됨에 따라 농업인에서 비농업인까지 확대되어, 건강, 비만, 보건 등으로 그 내용도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협의를 통한 농촌지도사업개발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농촌지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아예 농촌지도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동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셋째, 행정뿐 아니라 법인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도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공익법인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경우는 민영화를 통한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효율화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의 장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체적 농촌지도사업의 효과성을 배가시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제3장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과제

## 1.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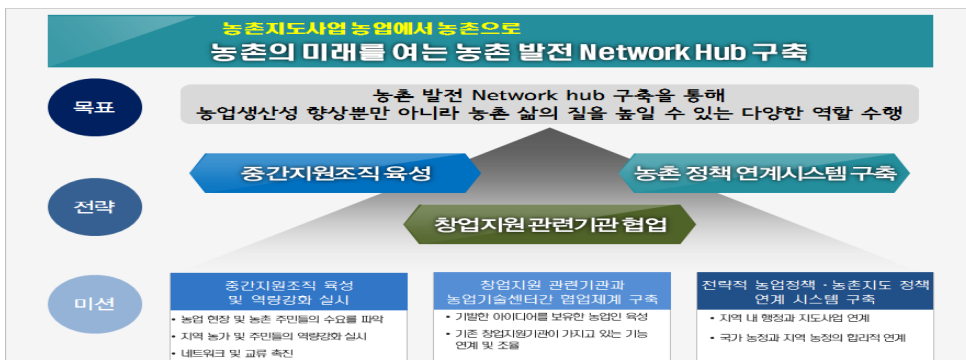
앞서 농촌지도사업의 여건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은 효율적인 농업생산을 위한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보급이 주요 미션이었다. 이는 국가적 목표아래 이를 지원 또는 보조를 맞추는 형태의 지도사업이라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농촌지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중앙과 지역의 조화,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조화 균형, 농업생산기술 및 외연확대기술등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양면적 성격의 대상과 사업, 그리고 지도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외국사례 또한 지도사업의 대상이 비농업인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방과 지역의 협동화 사업으로서의 농촌지도사업을 바라보고 있으며, 농촌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민영화를 통해 나타난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 등 기존과는 다른 패턴으로의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을 고민케 한다.

특히, 최근은 기술 및 시장 패라다임의 전환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농촌지도사업만으로는 모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미래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농촌지도사업 농업에서 농촌으로, 농촌의 미래를 여는 농촌 발전 Network Hub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중간지원조직 육성(협력) , 창업지원 관련 기관과 농업기술센터 협업, 농촌지도사업 수행 프로세스 혁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1〉 농촌지도사업 비전 및 목표

## 2.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 1) 중간지원조직 개념 및 유형

####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민간과 행정의 가교역할, 민간과 민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인재·자금·정보 등 자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추진주체를 조직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사회적경제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컨설팅, 코디네이션, 교류, 파이낸싱, 정보, 로비, 경영,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NPO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NPO와 NPO, NPO와 행정기관,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도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중간지원센터의 유형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은 설립주체와 운영주체 등에 따라 ‘관설관영’, ‘관설민영’, ‘민설민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설관영’은 행정이 설립하고 행정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형태를 말하며, ‘관설민영’은 행정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는 형태이다. 또한 ‘민설민영’은 민간이 자생적으로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중 대부분은 ‘관설관영’ 또는 ‘관설민영’ 형태이며,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나라에 따라 ‘민설민영’의 형태가 비중이 높은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중간지원기관의 활동형태를 기준으로 지역밀착형, 기능분야(전문분야) 특화형, 중간지원 조직지원형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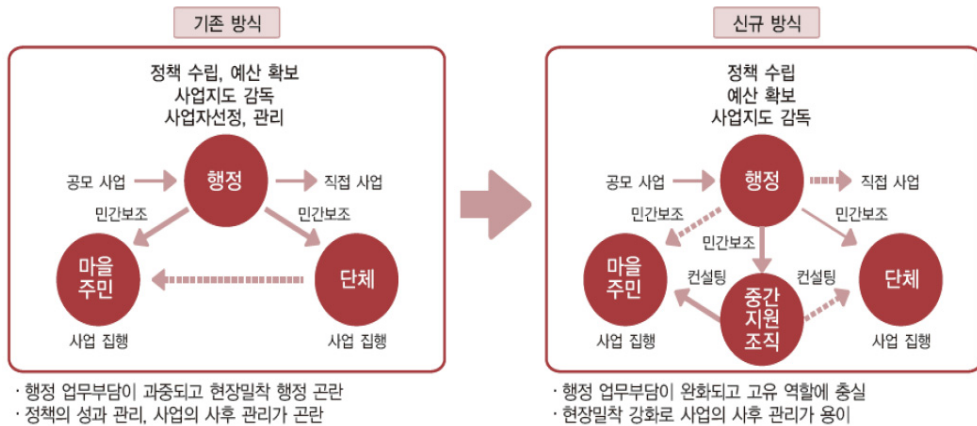
〈표 3-1〉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특징

분류	관설관영	관설민영	민설민영
주체	행정	행정	민간단체
운영 주체	행정	민간단체(계약처의 선정은 입찰이나 수의계약)	민간단체
직원	행정기관 직원(인사이동 존재)	민간단체 직원(전임)	민간단체 직원(전임)
사업 자금	행정자금	행정자금, 독자사업은 자체재원	
자유도	각종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안정적	수탁단체의 능력, 전문성, 경제적 자립도(교섭능력 필요)	자유로움(다만 불안정)
이점	자금면에서 안정적이며 운영의 연속성 보장	관설민영과 민설민영의 쌍방의 이점	시민의 주체성
특징	사행정주도형으로 빠지기 쉬움, 직원의 이동에 따른 책임성의 문제, 지원체로서의 전문성, 선구성의 어려움	위탁사업 수입 의존에 따르는 독립성, 중립성 호가보의 어려움, 회비, 보조금, 공모사업, 자체사업 등으로 다양한 자원 확보 노력, 시민주도의 운영전환 목표 필요	이상적이긴 하나 높은 경영센스가 요구

## 2)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필요성 및 역할

### (1) 지역공동체 육성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필요성 대두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역공동체 육성과 관련 하여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지역공동체를 직접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과 함께 중간지원조직 육성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 조직과 정부정책과의 중재, 연계, 보완 및 지원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밀착 강화로 사업의 사후관리가 용이한 특성을 지닌다.



〈그림 3-2〉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업 체계의 장점

자료 : 국토연구원(201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 및 전망

## (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과 조언, 인재육성 및 확보, 재정 및 경영지원, 홍보마케팅,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중간지원기관을 보육자(Incubator), 매개자(Intermediary), 조직경영지원자(MSO: 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첫째로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자원과 기술을 알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조직운영, 재정, 인력확보, 홍보 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담당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른 조직과 네트워크하고 각종 제도와 법률의 적용을 수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네 번째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의 정비, 조사, 연구, 여론형성, 제도화, 입법화를 위한 로비 활동 등 전략적인 장기적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에는 중간지원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 사업전개, 자금조달, 인재육성, 상담창구, 정보발신, 교류촉진, 코디네이트,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으로는 사업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중간지원 활동 외에 공공시설 위탁운영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NPO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정보의 수·발신, 자원과 기술의 중개, 인재육성,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평가, 정책제안,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일본 커뮤니티비즈니스 및 NPO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기 능	역 할
정보의 수·발신	NPO나 행정, 기업 등 각 주체에 대한 정보수집,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
자원과 기술의 중개	정보제공이나 상담업무 이외에 NPO법인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금, 인재 등을 지원하거나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
인재육성	NPO법인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운영, 자금확보 등에 대응가능한 인재양성
상담 및 컨설팅	NPO법인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관련된 문제나 어려운 점을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누구나가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 관련 NPO를 네트워크하거나 각각의 NPO법인이 가진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코디네이트 역할 수행 지역자원(사람, 물건, 돈 등)의 마케팅, 협력관계(행정, NPO, 기업 등)의 코디네이트 제공
평 가	NPO활동의 지표를 활용하여 활동실태나 정보에 대한 수준을 정부, 기업, 개인 등 지원기관에게 제공
정책제안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 시키거나,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어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나 방법을 구축,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
조사·연구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활동으로 중간지원조직만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특정 사회이슈의 해결방안을 제시

자료 : 송두범(201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 3) 중간지원조직 주요 이슈

#### (1) 농업의 6차산업화와 중간지원조직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부터 농업의 6차산업화는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농업농촌현장에서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농촌지도사업중 생활개선사업을 통해서 6차산업이 지역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의 여성일감갖기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의 농산물가공사업 육성등이 이러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성공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도 배출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농업인이 농업이외의 분야, 가공, 판매, 유통, 회계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농업이외의 타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농업인에게 그럴만한 여력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바로 행정조직에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인의 비즈니스적 활동인 6차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 지원차원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즉, 6차 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아직도 인력, 자원, 정보 등 상당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거나 개별 분산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활성화 또는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책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농업인을 매개함으로써 사업의 실패확률을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행정적 시각과 비즈니스적 시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농업경영체들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인력, 정보 등의 부족으로 외부의 존성이 높거나 이를 충족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연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한 것이다.

## (2) 과학기술 및 ICT활용 연계와 중간지원조직

최근에는 중간조직이외의 혁신연계조직이라는 개념도 등장되고 있다. 즉, 기존의 중간지원조직기능에 과학기술의 혁신적 활동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과학기술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기술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림 3-3〉 새로운 중간지원조직 형태인 혁신연계조직

자료 : 김종선 외(2014). 과학기술·ICT와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만들기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전략. 미래창조과학부

혁신연계조직은 농촌사회의 혁신적 사업수요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기획을 먼저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혁신역량 강화, 과학기술 및 ICT 사용자 주도형 혁신 지원, 다양한 R&D 주체들을 연계를 통한 농촌사회혁신을 수행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과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R&D 주체에 한정했던 협력의 범위를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대한·연구소·선도농업인, 기업, 소셜벤처 등 여러 과학기술혁신 주체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즉, 이는 이미 농촌지도사업의 대상이 농업인에서 비농업인으로 까지 확대됨으로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의 대상이 넓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 3. 창업지원 관련 기관과 농업기술센터 협업

#### 1) 창업지원 관련 기관과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 필요성

농업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생산위주의 농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공·서비스 분야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이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우고 사업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업 지원 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은 농산업 분야를 다양화하고 젊은 농업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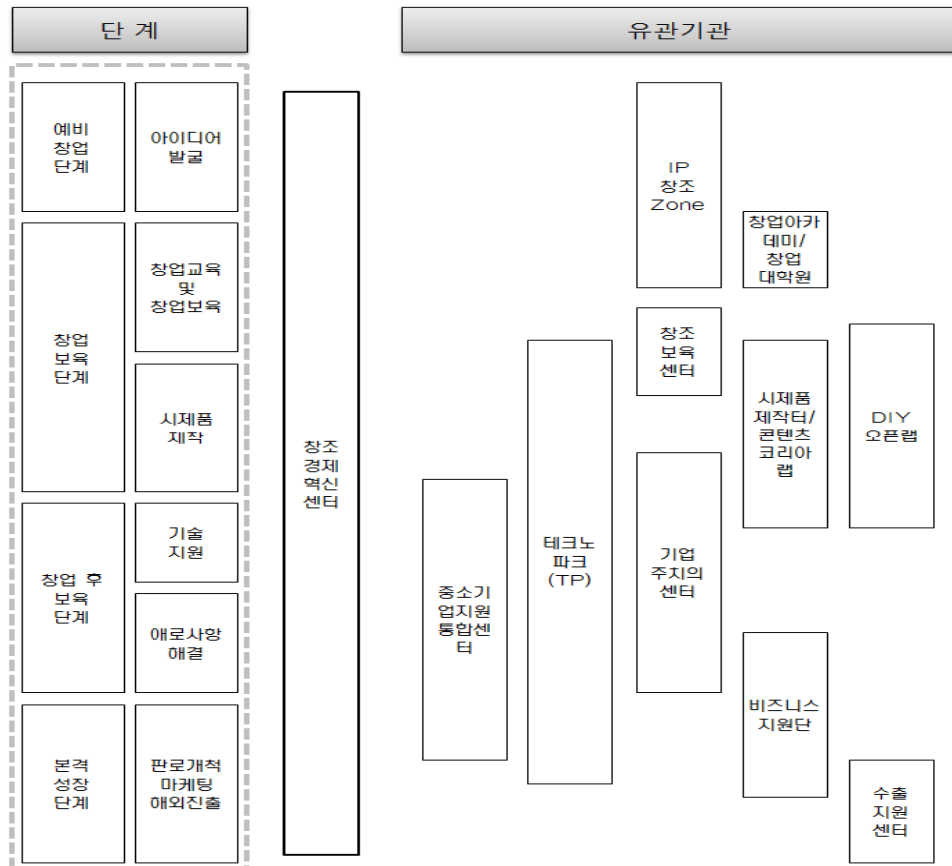
〈표 3-3〉 창업 지원 관련 지역 유관기관

기관	소관부처	특징 및 주요기능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현,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a href="http://www.smehappy.re.kr">http://www.smehappy.re.kr</a>	미래창조 과학부	40여개 출연(연) 및 전문기관 공동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기업주치의센터 (현, 기업성장지원센터) <a href="http://www.bizdoctor.or.kr">http://www.bizdoctor.or.kr</a>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테크노파크		지역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산업창출을 위하여 인적·물적 기술자원을 집적화한 산업기술단지
IP 창조 Zone <a href="http://ipczone.ripc.org">http://ipczone.ripc.org</a>	특허청	각 지역의 RIPC(지역지식재산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
창업아카데미 <a href="http://www.startup.go.kr">http://www.startup.go.kr</a>	중소기업청	대학생,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지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 창업교육 실시
시제품제작터 (각 지방중기청 소재)		시제품제작을 위한 전문가 서비스 및 셀프제작소 장비를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원
비즈니스지원단 <a href="http://link.bizinfo.go.kr/">http://link.bizinfo.go.kr/</a>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 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1,800여명)
창업보육센터 <a href="http://www.bi.go.kr">http://www.bi.go.kr</a>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경영지도 등을 제공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공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지속가능 경영체제 강화 등을 목표로 중소기업 진흥 사업 추진
콘텐츠코리아랩 <a href="https://www.ckl.or.kr">https://www.ckl.or.kr</a>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네트워킹, 펀딩, 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5),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NARS현장보고서 제41호.

## 2)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

대부분의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창업 관련 기관들 간의 미흡한 연계 협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4〉 창업 지원 단계별 유관기관 현황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5),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NARS현장보고서 제41호.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족한 지 초기이지만 농식품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들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는 전남 혁신센터에 있는 농식품특화센터의 창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즉석 즉 개인사업자가 창업했으며, 경북 문경에서 오미자차 등을 판매하는 (주)웰모닝은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5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장류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궁골은 충남혁신센터의 명품화 지원을 통해 세련된 포장 디자인을 도입, 기존의 방문객 판매를 넘어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아름드리숍에 진출하여 전통 장맛을 자랑하고 있다.

앞으로 각 혁신센터 파트너 대기업의 디자인·마케팅 노하우와 유통·물류망 등을 본격적으로 농식품분야에 접목하고, 농식품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게 되면, 성과는 한층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센터 연계·협력을 통한 농업분야 창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농업인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창업지원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연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려 노력하는 점에서 향후 농촌지도기관이 참고할만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 4. 전략적 농업정책·농촌지도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

### 1) 지역내 행정과 지도사업의 연계

지역의 농업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지역 농업 분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방안에 입각한 농촌지도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도사업과 행정정책사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연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과 진흥조직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는 농림사업의 영역에 대한 구분을 토대로 각 조직의 고유기능을 설정한 후 전담 수행하는 방식과 농림사업에 대한 영역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의 추진 상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설정한 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림사업의 영역에 대한 구분을 토대로 각 조직의 고유기능을 설정한 후 전담 수행하는 방식의 예로는 행정 파트에서는 농업생산시설확충을 전담하고 지도파트에서는 신기술보급을 전담, 또는 농촌자원개발 및 생활개선 분야의 경우는 행정파트에서는 농촌교육 복지를



전담하고 지도파트에서는 농촌관광사업을 전담하는 방법이 있다.

농림사업에 대한 영역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의 추진 상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설정한 후 수행하는 방식의 예로는 수출농업육성에 있어서 사업 계획은 공동으로 하고, 행정파트는 자금지원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하며, 진흥조직은 수출용 농산품 기술 보급 등 사업 실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 2) 국가농정과 지역농정의 합리적 연계

지역 농정의 전략방향을 위해서는 농업의 지역적 특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지역의 적절하고 합리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우는 지역이라는 경계내에서만 특화품목을 우선시 하였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틀속에서 지역특화품목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논농업에서 밭농업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농정체계속에서, 지역간 따라하기식 특화품목은 상생이 아닌 상쇄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행정조직과 지도조직의 협업체계 분 아니라, 국가농정방향 속에서의 지역농업과 농촌의 위상을 가늠하는 것은 앞으로의 농촌지도사업이 가져야할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 제4장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를 사례로 발전방향 제시

앞서 3장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과제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연계(6차산업, 과학기술 및 ICT 융합적 측면에서 가속화),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창업보육기관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전략적 농업정책·농촌지도정책 연계(지역내의 행정과 지도의 연계, 전체 농정과 지역농정의 연계 및 합리적 배분)를 제시하였다. 이는 농촌지도사업의 여건 변화와 선진국가의 농촌지도체계로 부터의 시사점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또한 철저한 창업보육과 교육을 통한 농산물가공사업의 성공사례로서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를 보았으며, 정확한 농정방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낸 완주군 농정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1. 홍성군 농업·농촌 현황

#### 1) 홍성군 인구현황

##### (1) 연도별 인구현황

홍성군의 총가구수는 39,530호이며, 총인구수는 93,727명(2014년 기준)으로 2006년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06년 16,339명이며, 2013년 인구는 19,306명으로 7년간 1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21.1%로 초고령사회 기준(20%)에 해당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 까지 총인구수 증가율은 0.3%인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수 증가율은 18%로 증가폭이 커, 고령인구는 증가한 반면 다른 연령대 인구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1〉 홍성군 연도별 인구 현황

(단위 : 가구, 명)

연별	세대수	인구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합계	남	여	
2006	35,177	90,929	45,394	45,535	16,339
2007	35,196	90,393	45,093	45,300	17,006
2008	35,397	90,286	45,002	45,284	17,345
2009	35,634	90,099	45,008	45,091	17,729
2010	36,490	91,128	45,552	45,576	18,003
2011	36,967	89,739	44,799	44,940	18,315
2012	37,536	89,990	44,239	45,751	18,735
2013	38,320	91,282	45,684	45,598	19,306

자료:홍성군 통계연보(2014)

## (2) 연령별 인구현황

연령별 인구를 보면 50대(50~59세)의 인구수가 14,948명, 40대(40~49세)의 인구수가 13,908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0~9세 까지의 10대 미만 영유아 인구는 7,322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20대(20~29세)가 9,334명으로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중장년 이상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에 진입하면 여성이 성비가 남성의 성비 보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홍성군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합계	남	여
총계	91,866	45,847	46,019
0~9세	7,322	3,750	3,572
10~19세	10,055	5,312	4,743
20~29세	9,334	5,179	4,155
30~39세	10,469	5,421	5,048
40~49세	13,908	7,455	6,453
50~59세	14,948	7,619	7,329
60~69세	10,894	5,278	5,616
70~79세	10,080	4,175	5,905
80세 이상	4,856	1,658	3,198

자료 : 홍성군 통계연보(2014), \* 외국인 인구 제외

### (3) 인구 이동현황

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매년 총 이동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은 편이다. 특히, 시·도내 이동보다 시·도간 이동이 많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홍성군 인구 이동 현황

(단위 : 명)

연별	총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10	8,073	8,133	4,352	4,423	3,721	3,710
2011	8,360	8,125	4,461	4,501	3,899	3,627
2012	8,620	7,938	4,447	4,284	8,630	6,968
2013	9,839	8,344	5,333	1,652	4,506	3,646
2014	12,001	9,625	3,055	1,956	6,048	3,926

자료 : 홍성군 통계연보(2014)

## 2) 홍성군 농업현황

### (1) 경지면적 현황

홍성군 경지면적은 2012년 기준 14,347ha로 그중 답이 10,296ha이고 전은 4,051ha로 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작목별 경지면적을 보면 벼가 9,554ha로 전체 경지면적의 66.6%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4〉 홍성군 경지면적 현황

경지면적(ha)			주작목(ha)								
계	답	전	벼	고추	딸기	가을 배추	무	마늘	사과	참깨	인삼
14,347	10,296	4,051	9,554	608	128	423	42	75	107	117	107

자료 : 홍성군농업기술센터(2012년 기준)

## (2)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수 현황

2015년 기준으로 홍성군 농업가구수는 11,082호이며, 농업인구는 28,274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농업가구 중 전업농업가구는 6,325호이며 1종 겸업은 1,551호, 2종 겸업은 3,206호이다.

홍성군은 과거 10년간(2000 ~ 2010년) 농업가구수는 12%가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23.7%가 감소하였으며, 농업가구수에 비해 농가인구의 높은 감소비율은 농촌가구 구성원 중 일부 젊은 층 위주로 나타나는 이직 및 탈농촌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업농가 및 1종 겸업농가는 감소한 반면에 2종 겸업농은 63.4%가 증가하여 농업외 소득 비율이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차 산업 중심 생산구조에서 2·3차 산업이 혼합된 생산영역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 홍성군 농업 가구 및 인구수 현황

년도별	농업가구수(호)				농가인구(명)		
	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계	남	여
2000	12,613	9,056	1,595	1,962	37,080	17,921	19,159
2005	11,108	7,943	1,075	2,090	29,425	14,185	15,240
2010	11,082	6,325	1,551	3,206	28,274	13,663	14,611

자료 : 홍성군농업기술센터(2015.4.30. 기준)

### (3) 농산물 생산현황

홍성군 내 농산물 생산의 경우, 식량작물 생산량이 52,403.3톤으로(62.27%)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미채소를 포함한 채소류가 26,725톤(31.76%)의 차 순위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표 4-6〉 홍성군 부류별 생산현황(2014)

구분	생산면적 (ha)	생산량 (ton)	품목별 생산비(%)
식량작물	9,746.1	52,403.3	62.27
채소류	1,079.4	26,725	31.76
과실류	158	4,212	5.01
특용작물	280.8	354.9	0.42
화훼류	7.8	458	0.54
계	11,148.1	79,374.2	100

자료 : 홍성군 통계연보(2015)

미곡(쌀)의 경우 식량작물 생산량의 9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성군내 농산물 생산량의 약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홍성군 미곡(쌀)의 경우 충남 및 전국에서 높은 특화계수<sup>5)</sup>를 보이고 있는 홍성군의 대표 작물 중 하나로 충남 특화계수가 1.9, 전국 특화계수가 1.5이다.

또한, 미곡의 경우 농가에서 유기농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홍동면 문당리의 오리농법은 전국에서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지역 특화농법이다.

5) 한 지역에서 어떤 특정 품목 농산물의 재배면적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수치로 1보다 크면 경쟁력이 있다고 추정함(전국 재배면적 기준이면 전국 특화계수, 시도단위 재배면적 기준이면 도내 특화계수가 됨)

〈표 4-7〉 홍성군 식량작물 생산 현황

(단위 : ha, M/T)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면적	10,625.1	10,411.2	9,613.2	10,318.2	9,805.4	9,746.1
	(%)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량	59,133.8	55,459.6	49,657.3	51,996.4	47,666.9	52,403.3
	(%)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곡	면적	9,996.0	9,811.0	9,070.0	9,746.0	9,577.0	9,450.0
	(%)	94.1%	92.3%	85.4%	91.7%	90.1%	
	생산량	54,978.0	51,998.3	46,710.0	48,410.0	45,859.0	49,235.0
	(%)	93.0%	87.9%	79.0%	81.9%	77.6%	
맥류	면적	23.0	20.5	5.2	-	-	-
	(%)	0.2%	0.2%	0.0%	0.0%	0.0%	
	생산량	53.7	48.0	12.1	-	-	-
	(%)	0.1%	0.1%	0.0%	0.0%	0.0%	
잡곡	면적	33.8	25.1	28.0	31.9	26.5	25.2
	(%)	0.3%	0.2%	0.3%	0.3%	0.2%	
	생산량	41.1	24.3	26.8	33.6	88.7	87.2
	(%)	0.1%	0.0%	0.0%	0.1%	0.1%	
두류	면적	381.5	405.6	380.0	372.5	109.9	101.9
	(%)	3.6%	3.8%	3.6%	3.5%	1.0%	
	생산량	488.0	517.9	474.0	440.7	151.8	107.1
	(%)	0.8%	0.9%	0.8%	0.7%	0.3%	
서류	면적	190.8	149.0	130.0	167.8	92.0	169.0
	(%)	1.8%	1.4%	1.2%	1.6%	0.9%	
	생산량	3,573.0	2,871.1	2,434.4	3,112.1	1,567.4	2,974.0
	(%)	6.0%	4.9%	4.1%	5.3%	2.7%	

자료 : 홍성군 통계연보(2015)

과채류 중 딸기의 생산면적이 182ha 중 124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채소류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딸기의 경우 고소득 작목으로 홍성군 내 과채류 생산액의 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엽채류에서는 배추가 엽채류 생산면적 264.3ha중 254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채소류 생산량의 55.88%를 차지하고 있다. 조미채소에서는 고추가 가장 많은 생산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8〉 홍성군 채소류 생산현황(2014년)

부류별		품목명	생산면적(ha)	생산량(ton)	생산비율(%)
채 소 류	과채류	딸기	124	4,542	17
		수박	19	793	2.97
		참외	1	27	0.10
		토마토	21	120	0.45
		오이	4	279	1.04
		호박	13	262	0.98
		소계	182	6,023	22.54
	엽채류	배추	254	14,933	55.88
		시금치	9	10	0.04
		상추	1.3	31	0.12
		소계	264.3	14,974	56.03
	근채류	무	40	2,369	8.86
		당근	1	36	0.13
		소계	41	2,405	9.00
	조미채소	고추	520	2,027	7.58
		파	37	889	3.33
		양파	8	123	0.46
		생강	3	43	0.16
		마늘	10	76	0.28
		소계	578	3,158	11.82
	기타	가지	0.1	2	0.01
		기타	14	163	0.61
		소계	14.1	165	0.62
합계			1,079.4	26,725	100

자료 : 홍성군 통계연보(2015)



#### (4) 가축사육현황

홍성군은 전국 제1의 축산지역으로 특히 한우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6%를 점유하고 있으며 타 지역보다 육질이 월등하여 2014년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특산물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홍성 축산사육 1가구당 마리수를 보면 한우는 가구당 약 22.7마리, 젓소는 65.2마리, 돼지는 1619.1마리, 닭은 9,218.8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축산가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가구당 마리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홍성군 축산 산업이 규모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축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폐수 및 악취 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표 4-9〉 홍성군 가축사육현황

(단위 : 가구, 마리)

년도별	한우		젓소		돼지		닭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2009	3,371	58,551	73	4,783	306	404,048	64	2,273,231
2010	3,377	62,740	65	4,297	310	498,891	477	2,661,978
2011	3,347	67,691	64	4,201	310	495,305	555	2,717,413
2012	3,143	63,409	62	4,302	299	478,843	482	3,015,548
2013	2,666	57,302	63	4,400	274	464,045	424	2,738,375
2014	2,527	57,265	66	4,306	305	493,840	416	3,835,013

자료 : 홍성군 통계연보(2015)

#### (5) 상위 5대 품목 생산 추이(축산제외)

홍성군 내 원예작물은 쌀, 딸기, 배추, 고추, 사과 등의 품목이 높은 생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 5대 품목의 생산액은 173,974백만원으로 홍성군 농산물생산액(축산제외)의 82%를 차지한다(2012 기준).

5대 품목 재배면적 10,846ha는 총 농산물재배면적의 89% 수준이고, 생산량 75,425ton은 총 생산량의 84% 수준이며, 특히 쌀의 경우, 2012년 기준 48,410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2010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평균대비 가격 상승으로 높은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다.

딸기는 홍성군 내 지속적으로 높은 생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전국대비 2.4%,충남대비 6.9%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추의 경우 2012년 생산량은 전국 대비 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인구고령화 및 노동력감소로 인해 원예작물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추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나타나는 기후이상 등으로 변동 폭이 큰 가격 추이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수반되어진다.

〈표 4-10〉 홍성군 5대 품목 생산 현황

품 목 명	2010			2011			2012		
	면적	생산량	생산액	면적	생산량	생산액	면적	생산량	생산액
쌀	9,811	51,998.3	86,564	9,070	46,710	74,876	9,746	48,410	100,692
딸기	131	2,929	28,284	123	4,375	37,270	124	4,542	33,366
배추	260	15,792	10,196	292	17,892	10,592	250	18,000	14,652
고추	608	2,624	18,084	523	2,050	7,775	615	2,398	16,078.6
사과	108	3,074	4,121	79	1,223	3,022	107	2,240	10,640
합계	10,978	76,417	145,249	10,087	72,250	133,535	10,846	75,425	173,974

자료 : 홍성군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2014), 지역농업네트워크

#### (6)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

국립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홍성군 내 친환경인증농산물(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면적은 671ha이며, 출하량은 6,134톤으로 전국대비 3.6%, 충남대비 11.86%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출하량은 5,315톤으로 전체 친환경인증농산물의 8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생산량은 5.63%, 충남대비 36.91%로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이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 내 친환경농산물은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무농약 혹은 저농약보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량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무농약농산물은 111ha에 803톤이 출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농약 농산물은 전체 건수 중 3건으로 9ha의 생산면적에서 16톤이 출하되고 있다.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2015년 인증기간이 2015년 말에 만료가 됨에 따라 인증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홍성군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기농특구로 지정되어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유기농 브랜드 가치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1〉 홍성군 친환경인증 현황

구분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건수(건)	59	21	35	3
농가수(호)	805	608	191	6
면적(ha)	671	551	111	9
출하량(톤)	6,134	5,315	803	16
전국대비 출하량 비율(%)	3.60	5.63	0.22	0.01
충남대비 출하량 비율(%)	11.86	36.91	3.54	0.11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 홍성군 GAP인증 현황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 GAP)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정성 인증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인증과 함께 정부가 안전한 농산물을 보증하기 위한 세 가지 대표적 제도중 하나이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수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홍성군의 GAP 인증 단체는 2012년 8개 단체 94호의 농가가 있으며 총재배면적 203.51ha에서 1,750.4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에 재배면적에서 56.7%가 증가, 총 생산량은 100.5%가 증가한 수치이다.

〈표 4-12〉 홍성군 GAP인증 농가 현황

연도별	단체수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2009	3	50	129.90	872.7
2010	5	75	173.51	1,521.8
2011	6	80	184.91	1,604.7
2012	8	94	203.51	1,750.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운영 현황

### 1)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역할 범위에 대한 법·규칙

#### (1) 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2015)에서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농업후계인력 및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그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농촌지도사업의 조정에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16조 1항에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사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본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를 둘 경우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성군수는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조례에서는 소장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4-1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li> <li>- 토양비료, 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li> <li>-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li> <li>- 농업경영개선 및 협동영농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li> <li>-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li> <li>-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li> <li>- 농업 기술공보에 관한 사항</li> <li>- 농·축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육성</li> <li>- 그 밖에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 (4)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하부조직은 기획운영과, 친환경기술과, 기술개발과를 두며, 조례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역별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기획운영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친환경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촌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각 과 및 농업인 상담소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4-14〉 농업기술센터 사무의 세부적 범위

농업기술센터 사무의 세부적 범위(별표 3)	
기획운영과	
기획운영분야	인재양성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지도사업 소관 지도행정 종합기획</li> <li>2. 농촌지도사업 계획 평가</li> <li>3. 소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리</li> <li>4.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특기인력 관리</li> <li>5.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li> <li>6. 농업기술 공보에 관한 사항</li> <li>7. 농업인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li> <li>8. 차량, 청사 재산유지관리(전기, 수도, 난방, 방화)</li> <li>9. 홈페이지 유지관리</li> <li>10. 지도공무원 역량강화</li> <li>11. 강소농, 3농혁신 업무 기획 및 추진</li> <li>12. 그 밖에 타과 및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인 실용교육</li> <li>2. 농업인대학 운영</li> <li>3. 한국농수산물대학 졸업생 사후 관리</li> <li>4. 농업인 단체 연합회 육성</li> <li>5. 농촌지도자 육성지도</li> <li>6. 후계농업인산업기능요원 육성지도</li> <li>7. 4-H 육성 및 관련단체 지원</li> <li>8.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li> <li>9.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교육</li> <li>10. 국화축제 운영</li> <li>11. 지역리더 양성교육 추진</li> <li>12. 그 밖에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li> </ol>
농기계지원분야	농업인상담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기계 순회교육</li> <li>2. 농기계 안전기술 교육</li> <li>3.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li> <li>4.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li> <li>5. 농기계 보관관리 지도</li> <li>6. 교육훈련장비 운영</li> <li>7. 그 밖에 농기계 일반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방민원 및 전화상담</li> <li>2. 현장순회 기술지도</li> <li>3. 벼농사, 원예, 축산 등 현장순회 기술지도</li> <li>4. 시범사업 추진 및 각종 시범사업 순회지도</li> <li>5. 농업기술, 정보제공 등 새로운 신기술 보급 지도</li> <li>6. 영농관련 동향·여론수렴, 현장애로기술 상담</li> <li>7. 농업인단체 육성·지도</li> <li>8.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운영</li> <li>9.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li> <li>10. 상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li> </ol>

	명 칭	주 소	담당읍면
	동 부 상담소	홍동면 홍남장로 672번길 79-3	홍북, 금마, 홍동
	서 부 상담소	갈산면 갈산로120번길 6	결성, 서부, 갈산, 구항
	남 부 상담소	광천읍 홍남로 780	홍성, 광천, 장곡, 은하
※ 남부, 서부 상담소 상설운영, 홍북, 홍동, 갈산지역 4 ~8월 한시적 운영			
친환경기술과			
작물환경분야		소득작물분야	
<div>1. 식량작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도</div> <div>2. 벼농사 및 전작 기술지도</div> <div>3. 기상재해 대책지도 및 상황실 운영</div> <div>4. 시비법 개선 지도</div> <div>5. 식량작물(벼, 전작) 우량품종 보급</div> <div>6.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벼, 전작)</div> <div>7. 토양검정 및 토양개량 지도</div> <div>8.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div> <div>9. 농약 안전사용 지도</div> <div>10. 농업기상장치 관측조사 운영</div> <div>11. 액비검정 및 시비 처방서 발급</div> <div>12. 쌀·현미 품종, 품질 검사</div> <div>13. 환경농업 관리실 운영</div> <div>14. 친환경농업 품질인증업무 추진</div> <div>15. 식량작물(벼, 전작) 생육상황 조사</div> <div>16. 병해충 진단실 운영</div> <div>17. 식량작물 관찰포 및 예찰단 운영</div> <div>18. 수출농업 총괄</div> <div>19. 과내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div>		<div>1. 소득작물 기술보급 계획수립 및 평가</div> <div>2. 수출작목(소득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및 지도</div> <div>3. 시설채소 기술보급 및 지도</div> <div>4. 노지채소, 산채류 기술보급 및 지도</div> <div>5.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보급</div> <div>6. 소득작물 수확후 관리 기술보급 및 지도</div> <div>7. 과실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div> <div>8. 과실 친환경 생산 기술보급 및 지도</div> <div>9. 과수 영양진단실 운영</div> <div>10. 화훼재배 및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div> <div>11. 특용 및 약용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 및 지도</div> <div>12. 소득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div> <div>13. 소득작물 농업인 조직체육성 및 지도</div> <div>14. 지역특화 작목육성</div> <div>15. 도시농업육성</div> <div>16. 그 밖에 소득작물에 관한 사항</div>	
경영축산분야			
<div>1. 우량가축보급 및 능력개량 지도</div> <div>2. 축종별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div> <div>3. 고급육 생산기술지도</div> <div>4. 가축분뇨 관리 지도</div> <div>5.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기술</div> <div>6. 축사 환경개선 지도</div> <div>7.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 지도</div>		<div>8. 친환경 축산 기술지도</div> <div>9. 햄 가공산업 육성</div> <div>10. 농업경영개선</div> <div>11. 농가 경영조사 분석</div> <div>12. 농업 전산 및 정보화 추진</div> <div>13. 그 밖에 경영축산에 관한 사항</div>	



기술개발과	
기술개발분야	농촌체험분야
1. 우량육묘 생산공급 및 분양관리 2. 신 소득 작목 시험·연구·실증계획수립 관리 3. 식물조직배양 업무 4. 지역농업 실증 시설물 관리 및 기술개발과제 5. 유용미생물 지원실 운영 6. 친환경에너지 절약 포장시험 7. 미 도입 농자재 포장시험 8. 신 농법 경제성 연구 9. 시험 연구 작목 특화사업 10. 과내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농촌체험사업 육성계획 수립 2. 농촌체험 전문인력 육성 3. 농촌체험학습 교육농장 육성 4. 농촌체험 학습단체 육성 5.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6. 농촌관광 지역 네트워크 조직육성 7. 농촌자원개발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8.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9.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 도·농교류 지원 11. 귀농·귀촌에 관한 업무 12.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원 13. 그 밖에 농촌체험과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생활자원분야	
1. 농촌자원개발상품화 2. 농업인 건강관리지도 3.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 농작업 개선 및 소득활동 5. 농촌여성 기능교육 6. 농·축산물 가공 기술개발·교육 및 시설 운영	7. 농업인 식품가공 활성화 지원 8. 농촌노인생활 문화 사업 9. 농촌여성 소득사업 10. 생활개선회 단체 육성 11. 가공 관련 6차 산업 추진 12. 그 밖에 생활자원에 관한 사항

## 2)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주요 활동

### (1) 2015년 주요성과

농업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홍성군 주요작목인 쌀, 딸기, 축산물 기술 보급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친환경 재배 확대를 위해 유용 미생물 공급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학 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인력교육과 고품질 안전생산물 지원을 통해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밖에 농촌 발전을 위해 ‘귀농하기 좋은 홍성’, 어메니티 지역농업특성화, 홍성사랑 국화축제 개최, 농가경영컨설팅 및 소득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표 4-15〉 2015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주요 성과

사업명	내용
고품질 주곡 안정생산 기술 보급	쌀, 맥류, 박작물, 콩 등 곡물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우량묘 공급	딸기 우량모주 육묘 및 농가보급
유용 미생물 공급사업	유용 미생물 공급 및 활용교육, 미생물 대량화 및 자동화 공급시설 구축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력 육성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도·중앙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등
제14회 홍성사랑 국화축제 개최	지역민 및 내방 관광객에게 볼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제공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돼지, 소, 사슴 등 축산물 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지원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경영컨설팅 30가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0품종 36농가, 스마트 농업경영 교육추진
귀농하기 좋은 홍성	귀농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및 안정적 정착 도움
에메니티 지역농업특성화	농촌체험행사, 신기술 실증 연구활동(스쿨팜), 상시 소통체계 활성화

자료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 (2) 홍성 농업기술센터 2016년 업무계획

홍성군은 2015년에 이어 고품질 우량육묘 생산사업을 통해 홍성군 딸기 우량육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홍성군 주요작목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주곡 안정생산기술 보급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실시한 농가경영컨설팅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한편으로 정보화 추진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는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표 4-16〉 2016년 홍성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사업명	내용
고품질 우량육묘 생산사업	고품질 딸기우량육묘 공급, 우량육묘 생산기반조성
농축산미생물지원실 운영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및 활동교육, 축산 미생물지원실 이전 증축
주곡 안정생산기술 보급	벼 우량종묘 보급 및 곡류 생산단지 육성, 농법교육 등
환경농업관리실 운영	토양검정, 품질검사, 바이러스 검정, 병해충 예찰 등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약취저감 기술 보급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 및 약취발생 저감 환경개선 실증 등
농가경영컨설팅 및 정보화 추진	농가경영 컨설팅 및 소득조사 실시
지역 농특산물 이용 가공상품화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의 경쟁력향상 컨설팅 지원, 위생 및 시설개선, 상품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원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시범	농산물 종합가공실 활용 가공기술 개발 및 이전 단계적 농식품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충남 향토음식 힐링 여행 프로그램 개발	관광자원 연계 향토음식의 체계적 가치 활용 기술개발
내포문화가 살아 있는 식도락 마을 공정여행 운영(농촌체험)	농촌자원 상품화로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및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
귀농하기 좋은 홍성	홍성군 귀농인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농기계 순회 수리 및 현장 이용 기술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실시

자료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2016년 신규사업으로는 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지역 농특산물 이용 가공상품화, 충남 향토음식 힐링 여행 프로그램 개발, 내포문화가 살아 있는 식도락 마을 공정여행 운영(농촌체험),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이 있다. 특히 이중 가공 및 체험, 음식등 6차산업관련 사업이 신규로 진입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고,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임대사업도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3.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과제 도출

#### 1) 홍성군 농업·농촌 및 농업기술센터 현황 검토

##### (1) 홍성군만의 특화작목 개발 필요

홍성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2014년 기준으로 57,265마리로 황성군에 비해 사육두수는 많지만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황성군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벼농사의 경우 축산을 제외한 농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지 면적당 소득은 낮은 편이다과채류 중 딸기와 채소류에서 배추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체로 홍성군의 농업은 축산 및 벼농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즉, 홍성군은 한우의 경우는 양적으로는 황성보다 우위에 있지만 브랜드력이 떨어지고, 벼농사가 농산물생산의 50%이상이지만 경지면적당 소득이 낮으며, 과채류에서는 딸기와 배추의 생산량이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FTA체결로 인한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축산 및 벼농사 외에 다른 특화작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2) 친환경·유기농에 특화된 강점을 살린 농산업 기반 조성

홍성군은 친환경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그중 유기농 농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201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기농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기농산물 생산은 추후 홍성군 농업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투자 및 홍성군 유기농 브랜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농가 및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 필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위해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성군 농업인 상담소는 남부, 서부 상담소 두곳이 상설운영중이며, 홍북, 홍동, 갈산에 4월부터 8월 까지 한시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담소 수가 적고, 농가의 요구나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인 상담소 외에 농업인과 교류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적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기술을 보급·전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산지 외에 고객 및 시장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 2) 과제 도출

앞서 3장에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농촌의 미래를 여는 농촌 발전 Network Hub 구축’을 비전으로 중간지원조직 육성, 창업지원관련기관 협업, 농촌 정책연계 시스템 구축을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홍성군 농업·농촌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구축, 농업 서비스 플랫폼 역할 강화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과제로 도출하였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기존 홍성군이 축산 및 벼농사위주의 농업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유기농 특화지역인 홍성군의 강점을 살려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구축은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현장 수요를 농촌 지도 및 연구,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제안하였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 현장의 요구 및 수요를 전달 받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창업, 농업기술, 정책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에 다양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농업 서비스 플랫폼 역할 강화를 과제로 도출하였다.



〈그림 4-1〉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과제 도출

## 4.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제시1-지역특화작목 육성

### 1) 지역특화작목 육성 개요

#### (1) 지역특화작목의 개념 및 육성 관련 정책 현황

지역특화작목이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독특한 “기술과 기능”을 살리거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재”(풍토, 자연, 역사 등)와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을 말하며, 작목의 특화계수(물량), 작목에 대한 전통성(역사성), 작목에 대한 재배적지 등을 이용하여 파악해야 한다.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작목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품질과 규격이 균일한 “균일성”과, 품질·기술면에서 그 지역의 특화작목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과 “우위성”을 갖추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신뢰성”과 소비자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화제성”을 필요로 한다.

〈표 4-17〉 지역특화작목의 기본 조건

기본 조건	내 용
균일성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품질과 규격 등이 통일되어 있으며, 안정되어 있을 것
독자성	풍토에 적합한 조건, 생산체제 기반 구축, 독자적인 특성 육성
우위성	대량 생산체제의 확보, 전국 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 통일 브랜드로 전국적 확대
신뢰성	품질확보와 개량 노력 등 소비자요구 충족
화제성	화제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노력

## (2) 지역 특화작목의 차별화 요소와 유형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차별화 요소는 작목별 혹은 목표 소비자별로 느끼는 이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가 느끼는 이미지를 조사하여 소비자의 가치평가가 높은 순으로 차별화 요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차별화 요소를 선정하기 위한 분류기준은 품질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안전성 차별화, 입지조건 차별화, 유통방법 차별화 등이 있다.

〈표 4-18〉 지역특화작목의 차별화 요소

차별화요소	내 용
품질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단계 : 품종, 재배법 등</li> <li>• 수확후 처리단계 : 세척, 절단, 선별, 가공, 수확, 수송 등</li> </ul>
이미지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화 과정(기술적 과정, 포장·디자인 등)</li> <li>• 지역 이미지 활용 : 역사성 부각, 자연자원강조, 지역명성활용, 특정기술강조 등</li> </ul>
안전성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수확, 유통단계 차별화</li> </ul>
입지조건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 재배적지, 출하시기, 관광지, 대소비지 접근성 등</li> <li>• 기후조건, 전통·역사성 이미지 등</li> </ul>
유통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경로 차별화, 운송방법 차별화, 출하방법 차별화 등</li> </ul>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소비자 이미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지역의 차별화 요소를 판매기능과 결합시켜 정리하면 다양한 차별화 유형을 얻을 수 있다.

〈표 4-19〉 지역특화작목의 차별화 유형

구 분	내 용
① 지역자원이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별화 정도 강화</li> <li>• 지역품목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수요확대 등 - 관광, 사적지, 사찰, 이벤트 등도 활용</li> </ul>
② 시장세분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품목의 시장세분화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개</li> <li>• 도매형(대량판매), 유통업체형(중급, 고급), 직판형 등</li> <li>• 계층특성별 마케팅 등</li> </ul>
③ 선물용 수요 대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 지향적</li> <li>• 후발산지 참여 어려움</li> </ul>
④ 출하시기차별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방법, 품종변화, 저장조절 등</li> </ul>
⑤ 기술변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이나 재배기술 변화</li> <li>• 무농약재배, 신품종 도입 등</li> </ul>
⑥ 유통차별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유통, 수송수단 차별화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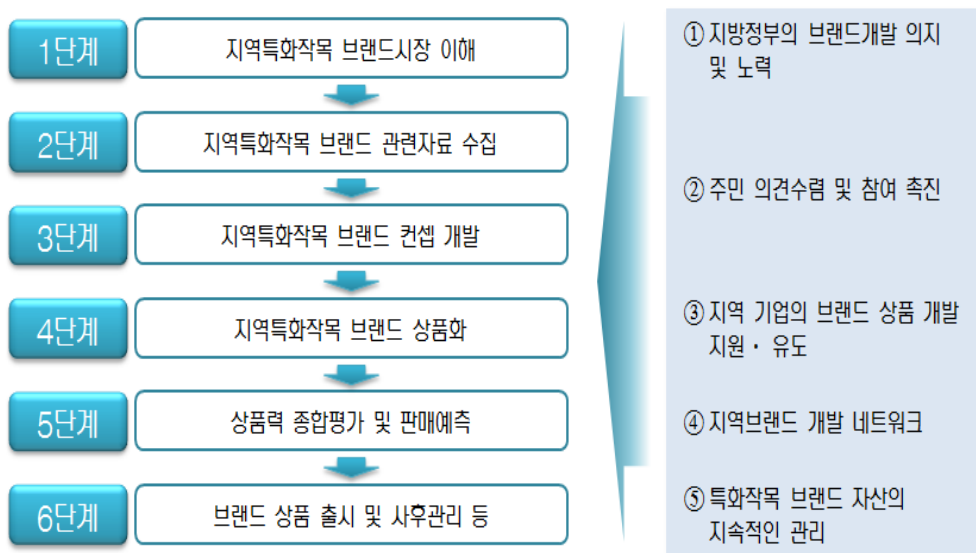
자료 : 농촌진흥청(2005). 지역특화작목의 브랜드화 방안



## (2) 지역특화작목의 브랜드화 추진절차<sup>6)</sup>

지역특화작목이 다양한 차별화 요소를 갖추고 있어도 브랜드화 추진주체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사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특화작목을 브랜드화 할 경우 해당 작목의 시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다음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컨셉을 개발해야 한다. 브랜드 컨셉이 정해지면 지역특성 및 컨셉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의 반응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한다.



〈그림 4-2〉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육성을 위한 추진 프로세스

## (3) 지역특화농산업 육성 관련 정책 현황

지역특화농산업은 지역 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림으로써 독자성, 차별성,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거나, 지역자본, 지역자원, 지역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지역개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현대적 의미의 산업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sup>7)</sup>

6) “농촌진흥청(2005). 지역특화작목의 브랜드화 방안”을 참조

7) 유영심(2009). 정통장인 보유기능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지역특화농산업은 지역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보고 지역에 특화된 농업 생산 부분을 2차 산업 및 3차 산업과 연계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지역특화농산업은 특화작목의 조직화를 통해 특화작목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여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1999), 향토산업 육성사업(2007),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2005), 지역특화 발전특구제도(2004) 등 농업부문의 지역특화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표 4-20〉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

부처별	시작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발전 위원회	2010	기초생활권 개발과 포괄적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1967	농어촌특산단지	공예품 중심, 시설 및 운영비 융자
	1993	전통식품육성사업	전통식품, 시설 및 운영비 융자
	1999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역특산물, 군특회계 보조
	1999	지리적표시제도	지리적표시대상 등록, 차별적 유통
	2005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역농업육성
	2005	신활력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 군특회계 보조 낙후도에 따라 다름
	2007	향토산업육성사업	향토지원의 산업화, 광특회계 보조 시·군 낙후도에 따라 다름
	2010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의 개편
중소기업청	1998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 자금·기술·판로지원
안전행정부	2001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향토자원 발굴, 상품생산을 위한 지원
산업통산자원부	200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역연고산업의 육성
기획재정부	2004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 2)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례<sup>8)</sup>

### (1) 문경 오미자

문경 오미자 산업은 1993년 야생 오미자의 이식재배시험을 거쳐 1996년에 새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으로 동로면에 오미자재배단지 조성하면서 시작 되었으며, 이후 오미자 수요 확대에 힘입어 재배단지 확충과 기술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산업기반 구축 및 성장은 2003년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며 과잉공급이 우려되어 오미자 음료가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2005년 정부의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활력사업이 도입되며,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내 ‘오미자계’가 신설(2006)되었고, 오미자 축제(2005)와 문경오미자 산업특구 지정(2006)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산업성장기에 돌입하였다.

문경시장기종합개발계획(1995 ~ 2015)에서 문경시는 지역경제 진흥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과 지역관광산업육성을 전략산업으로 하여 오미자, 사과, 표고, 축산부문을 중점 특화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문경도시기본계획(1995 ~ 2014)에서는 문경의 지역경제 발전목표를 관광산업의 육성과 농업부문의 특성화를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문경오미자 산업을 융·복합형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전략을 수립하였다.

신 문경개발 Grand Design(2007 ~ 2017)에서는 문경오미자를 1·2·3차 융복합형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수려한 자연 관광산업을 연계한 전국 오미자 산업의 허브구축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오미자 관련상품을 명품화하여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전략을 수립하였음. 다양한 건강 기능성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문경오미자를 지역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미자산업의 성장동력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문경 오미자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활력지역지원사업, 광역클러스터사업,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사업과 산림청으로부터 임산물유통가공구조 개선사업, 산지약용

8)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례는 “박문호 외 2명(2014). 지역특화 농업 추진실태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였음

작물 유통시설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한방약초연계 협력사업을 지원받아 추진하였다.

〈표 4-21〉 문경오미자 육성 관련 사업실적

소관부처	회계명	사업명	특화사업명
농림축산식품부	광특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산림청	국비	임산물유통가공구조 개선사업	임산물유통가공구조 개선사업
산림청	국비	산지약용작물가공 유통시설사업	산지약용작물가공 유통시설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광특	광역클러스터사업	경북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국비	한방약초연계 협력사업	한방약초연계 협력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광특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

자료 : 박문호 외 2명(2014).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실태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경 오미자는 농업기술센터가 오미자산업 육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미자 시험장과 친환경오미자대학을 중심으로 생산기술 개발 및 농가 기술보급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오미자 농업인 실용교육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신규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재배농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부설 시설인 가공지원센터가 농가들에게 기술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미자 가공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2012년 (주)종근당건강과 오미자를 활용한 건강보조식품부문 공장 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을 추진해왔다.

문경시는 문경 오미자 홍보활동 및 체험관운영을 담당하며 문경시 4대 축제 개최 시 문경오미자의 체험·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4-22〉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 지원프로그램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주)종근당건강 기업유치협약	오미자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보조식품 개발보급	문경시 산양면 농공단지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	사업장 확보, 가공장비구입,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매년 3개소 지원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브랜드 관리 및 판매촉진 지원 활동	
소규모 농식품가공사업장 관리 및 가공교육 오미자 가공기술교육	가공 기술교육	
전통음식 체험 교육관 운영	향토음식 상품화, 창업기술 등	
오미자 가공관련 기술지원 컨설팅	오미자청 가공기술교육, 오미자청 생산기술의 생산관리 취약 공정 점검	

자료 :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사)문경오미자생산자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작목반 대표가 생산자 협회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문경오미자생산자협회는 전체 24개 작목반의 1,200명 회원(농암, 가은, 문경, 마성, 오개, 동로, 산북, 산양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친환경 오미자 생산을 장려하며 전체 농가의 70% 이상이 GAP기준보다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생산자협회는 2011년 지리적표시제 관리주체로서 지리적표시제 위탁업무 및 연구개발 지원비를 지자체에서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오미자생산자협회는 오미자 가격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산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 및 문경시와 협의하여 오미자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오미자 가공부문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으로 경북대, 건국대, 계명대 등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구용역,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연구용역사업 및 컨설팅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표 4-23〉 문경 오미자산업 구성주체의 역할분담 체계

구분	구성주체	주요 기능
산(産)	오미자 생산자 협회 오미자 친환경연합회 산동농협 생산농가·가공업체	생산시설 확충, 친환경제품 생산 현대적인 생산 및 가공시설 구축 및 운영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력사업 추진 문경오미자 경쟁력 향상 사업추진 틈새시장 발견 및 생산자에 정보 전달 홍보 및 수출 시장개척
학(學) 연(研)	오미자 시험장 오미자 가공 지원센터 대학 및 컨설턴트	품종·재배기술 및 연구개발 산업화(상품화)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경영진단, 시장분석, 전문 컨설팅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모니터링
관(官)	농업기술센터(오미자계) 문경시청(오미자 담당)	산업발전 총괄기획 및 행정지원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체 창업 지원 인력육성 및 재배기술 보급 인근 시군과의 협력방안 마련 및 추진 지역 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문경오미자는 백두대간 청정 환경을 이용한 친환경재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생물농약의 천적 등을 이용한 오미자 재배기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모든 오미자 재배 농가에 대한 친환경인증 획득이 추진 중이다.

오미자는 과거 약용작물로 인식되어 수요층이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문경시에서 음료용 오미자청을 개발하여 음료로서 시장개척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오미자 생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였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는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연구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품 및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신설업체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문경 오미자 산업의 성과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으로 산지의 소비 수요를 확충한 점에 있다. 기존 학약재 용도로 시장이 협소하던 오미자 시장을 오미자청을 비롯한 식품가공기술 개발로 음료시장 등의 식품시장으로 소비시장을 확장 하였다. 오미자 1차산물의 대부분을 지역내 소비수요에 공급함으로써 오미자 1차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수요를 창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상품 및 기술의 개발 보급이 활성화되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혁신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점을 들 수 있다. 문경시는 2000년대 초부터 문경오미자를 전락식품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오미자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산업육성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의 신활력사업(2005 ~ 2010년)을 활용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세 번째 성공요인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산지브랜드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오미자생산자협회와 오미자친환경연합회를 중심으로 생산기술의 체계적 보급 및 브랜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생산자조직이 주도하는 지리적표시제 및 브랜드 관리, 가격결정위원회를 통한 산지 중심의 가격결정구조확립, 친환경재배기술의 확산 등 생산자 조직화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 (2) 논산 딸기

논산의 딸기재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초속성 재배를 위한 야냉육묘 기술 도입, 고설식 수경재배 기술의 도입, 신품종 도입 등 고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와 국내품종인 ‘설향’의 개발보급이 이루어지고 친환경 살균, 살충제의 본격적 보급 등 친환경 재배기술 확산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 들어와서는 무농약 재배 기술의 발달로 친환경 인증 농가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친환경생산기반 구축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대 초 친환경 재배기술의 확산과 함께, 고품질 딸기 산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딸기를 논산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1년 논산딸기 축제 개최, 2008년 논산딸기산업특구 지정, 2008년 논산딸기 클러스터 사업 추진, 2009년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

논산시는 논산딸기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고 고품질 친환경 생산·유통·가공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딸기 상품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 ‘예스민’ 개발,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예스민 딸기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24〉 논산 딸기 관련 사업추진 실적

소관부처	회계명	사업명	특화사업명	사업기간
총계			10개사업 116억원	
농림축산 식품부	일반회계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12~'16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 (딸기고설재배)	'12~'14
			지역특화품목육성	'06~'13
		딸기마케팅 및 홍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09~'13
			에스민클러스터사업	'08~'10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10~'13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최고품질 과채생산 기술 시범단지조성	'06~'13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	'06~'13
			우량딸기묘생산시범	'06~'10
			지역농업특성화사업	'09~'13

자료 :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14)

딸기 산업육성 전반의 총괄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딸기특구팀, 논산청정딸기 축제팀에서 총 10명의 인력이 딸기 재배교육, 우량묘 보급, 고 설수경재배 등 기술보급, 딸기 특성화사업, 청정딸기 산업특구 관리, 딸기축제 관리 등 산업육성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딸기 교육과정으로는 논산농업대학 딸기학과, 친환경학과, e-비즈니스과를 운영하고 있다.

논산 딸기 생산자협회는 논산딸기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조직으로 논산딸기수경재배연구회, 논산딸기연구회, 무농약딸기 협의회, 탑(Top)딸기 프로젝트 조직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공산업과 관련해서는 딸기가공공장 6개소가 클러스터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딸기 가공상품개발 및 생산판매, 혁신주체 교육/학습 참석, 신제품개발 공동연구, 광고/마케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논산시 농협연합유통사업단에서는 참여농가 및 가공업체 제품판매, 광고·마케팅, 브랜드개발, 관측물 개발 추진, 권역별 농가 기술교육 주관 및 딸기축제시 지역농협별 딸기판매에도 참여하고 있다. 논산시 농촌관광협회에서는 그린 투어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마을 및 농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논산딸기 시험장에서는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현장애로기술, 농가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딸기수경재배 기술공동연구”, “친환경재배매뉴얼”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건양대학교에서는 식품생명공학분야와 관광분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충남 지역문화연구소에서는 지역문화와 농촌관광을 접목한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대한 연구, 자문,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딸기재배 유용미생물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주)고려바이오와 MOU 협약을 체결하여 딸기 흰가루병 방제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표 4-25〉 논산 딸기산업 구성주체의 역할분담 체계

구분	구성주체	주요 기능
산(産)	생산농가, 생산자협회 농협연합사업단 가공업체 논산문화체험협의회	고품질 딸기생산, 기술교육 기술교육, 상품개발, 공동브랜드 운영 딸기 가공, 판매, 수출 그린투어 운영
학(學) 연(研)	딸기시험장 건양대학교 충남지역문화연구소 충남대학교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농가교육 딸기 상품개발, 요리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관광 상품개발 딸기재배 유용미생물 연구
관(官)	농업기술센터	딸기 사업 총괄 추진, 산업특구 관리

논산의 딸기산업은 딸기의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논산시 딸기 시험장에서는 신품종인 매향, 설향, 금향을 개발하여 국산딸기 점유율을 높여 연간 72억원 이상 로열티 경감 효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친환경 청정딸기 생산시범단지가 육성되고, 친환경 인증농가가 확대되었는데 2006년 친환경(저농약, 무농약) 재배면적은 117ha 전체의 14%였던 반면 2012년에는 329ha 36.5%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친환경 딸기 재배 농가 또한 2006년 200농가에서 2012년 329농가로 증가하였다.

딸기축제를 활성화하고 체험관광을 통한 농업의 소득 창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딸기축제 내방객 75만명 방문으로 195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체험농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딸기체험 안내사 제도 운영, 체험객 대상 기념품 제작, 소비자 자문단 운영, 딸기음식 개발 후 전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딸기가

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6년 29,925명이 논산 딸기 체험장에 방문하였던 반면 2010년에는 117,000명이 방문해 3.9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논산시 딸기 특화품목의 성과요인중 첫 번째는 친환경 농업의 실천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청정 딸기 생산시험단지 육성 및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마련을 실시 하였다.

두 번째 성과요인은 논산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육성으로 인한 인지도 상승이 있다. 논산딸기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통한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종합 발전을 이루었으며, 논산시 주요농산물(딸기 등) '예스민'공동브랜드화 및 전략적 홍보, 논산딸기 인지도 (브랜드)상승으로 인한 높은 수취 가격 등으로 인해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홍성군 특화작목 대상 검토<sup>9)</sup>

#### (1) 딸기

전국적으로 딸기는 다수확, 내병성 신품종 개발, 고설식 수경재배 확산 등으로 평균 단수(10a)가 증가 추세에 있다. 충남은 경남지역과 더불어 전국적인 딸기 주산지이며, 특히 논산, 담양, 산청, 밀양, 진주 등 상위 5개 시군이 전국 유통의 50% 이상 점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딸기산업 경쟁력 제고대책(2014.06)를 발표하여 딸기를 내수시장과 수출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으로 향후 8년간 총8,381억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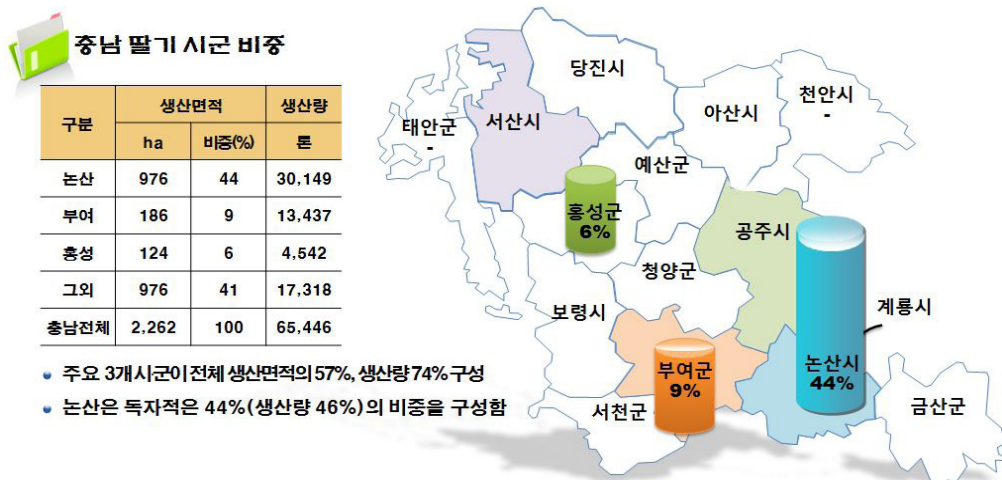
9) 홍성군 축산 및 쌀 농업을 제외한 상위 생산 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함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2014), 홍성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

- 1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협업연구를 통해 글로벌 종자 6종 개발 및 우량묘 생산 보급체계 구축... 생산성 제고
- 2 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지도 강화  
-고설수경재배시설 확대(30%), 재배매뉴얼 보급
- 3 공동선별출하 확대, 산지 마케팅기능과 자율 수급관리 유도  
-주산지의 연합사업단 중심 마케팅조직 육성
- 4 생산량 증가 대비, 딸기의 신규 소비 창출
- 5 ' 22년까지 딸기 수출 1억달러 달성... 수출기반 구축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
- 6 향후 8년간 총 8381억원 투입  
- 종자개발/육묘 995, 시설현대화 6622, 수출유통 719

〈그림 4-3〉 정부의 딸기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14.06)

홍성 딸기의 특화계수는 충남도내 1.2, 전국 2.5수준으로 충남 특화계수 5.2, 전국특화계수 11.4를 나타내고 있는 논산을 제외한 충남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 경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면적은 124ha(2012)로 충남 도내 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논산과 부여, 홍성 등 3개 시군이 충남 전체 생산면적의 57%, 생산량의 74%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논산이 재배면적 비중 44%, 생산량 비중 46%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4-4〉 충청남도 딸기생산 면적 비교

홍성군 관내 농협조직은 최근 5개년 연평균 100억 이상의 딸기 취급액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 홍북농협이 연평균 56억 규모를 취급하여 51.3%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물량은 연평균 1,264톤으로 관내 53.3% 차지하고 있다. 금마농협과 광천농협이 각각 23억(21.4%)과 17억(15.7%)규모를 취급하여 상위 3개 농협이 전체 판매액의 88.4% 비중을 차지한다. 홍성농협은 연평균 9.5억원 규모의 취급율로 8.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구항농협 1.8%, 결성농협 1.1%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4-26〉 홍성군 농협별 딸기 취급액(2009 ~ 2013)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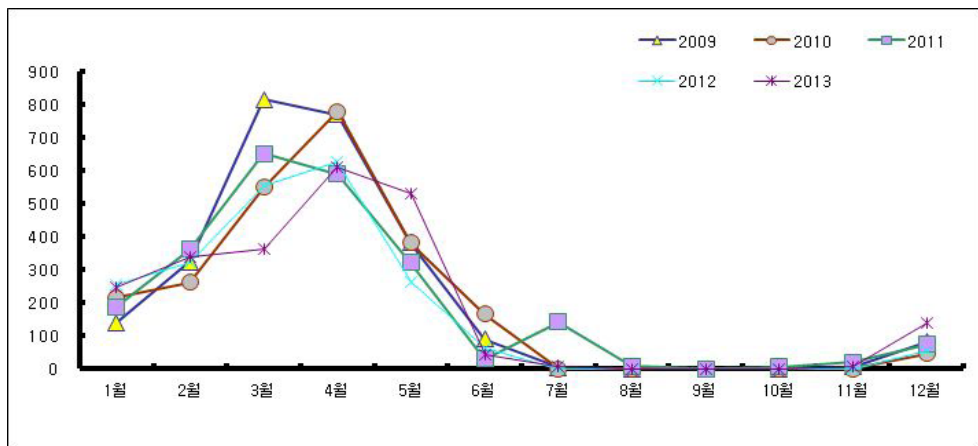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갈산농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결성농협	148	1.5%	100	1.0%	117	1.1%	112	0.9%	130	1.1%	121	1.1%
광천농협	1,704	17.3%	1,677	17.1%	1,651	15.0%	1,948	15.4%	1,628	14.0%	1,722	15.7%
구항농협	281	2.9%	155	1.6%	89	0.8%	22	0.2%	453	3.9%	200	1.8%
금마농협	2,003	20.4%	2,013	20.6%	2,270	20.6%	2,848	22.5%	2,598	22.4%	2,346	21.4%
서부농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곡농협	0	0.0%	0	0.0%	0	0.0%	0	0.0%	1	0.0%	0	0.0%
홍동농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홍북농협	5,315	54%	5,178	52.9%	5,602	50.9%	6,459	51.1%	5,623	48.4%	5,635	51.3%
홍성농협	377	3.8%	669	6.8%	1,285	11.7%	1,246	9.9%	1,186	10.2%	953	8.7%
합계	9,8280	100%	9,793	100%	11,014	100%	12,635	100%	11,618	100%	10,978	100%

농협조직을 통한 유통판매물량은 연평균 2,370톤 규모로 2012년 기준 관내 생산량의 48%수준을 취급하고 있으며, 홍북농협, 금마농협, 광천농협 등 상위 3대 농협이 평균 2,129톤의 물량을 취급하여 전체 농협 취급물량의 90% 수준을 취급하고 있다.

농협조직을 통한 월별 취급물량을 분석한 결과, 홍성 딸기는 3~4월에 연평균 1,263톤의 물량이 출하되어 전체 생산량의 54%가 집중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12월에서 6월까지 생산 출하되고 있으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있는 계절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계절적 수요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시 연중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여 우수 선별요원의 확보 및 활용이 어렵고, 연중 가동을 저하로 유지관리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월별 판매 단가에 있어서도 첫 출하가 이뤄지는 11월(9,005원/kg) 과 12월(9,897원/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하락하여 연평균 4,631원/kg 수준으로 단가가 형성된다.



(단위 : 톤)

〈그림 4-5〉 홍성군 농협조직 딸기 월별 취급량 추이(2009 ~ 2013)

주요 출하지역은 서울권(76.4%), 경기권(11.8%), 충청권(11.7%)에 99%가 집중 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권 출하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 논산시 농협조직은 서울권 45.7%, 경기권 24.3%, 충청권 28.5%로 출하비율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홍성군 관내 농산물의 내부 경합에 대한 우려는 물론, 도내 최대 물량을 갖고 있는 논산시와의 출하시기 및 출하지역의 중복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을 뜻한다. 논산시 농협조직이 연간 취급하는 딸기 물량은 16,780톤에 이르러 홍성 농협조직 취급물량의 7배 이상 상회하고 있어 물량의 규모화에 따른 시장 우위에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홍성군 농협조직의 딸기 판매단가는 논산시 농협조직 대비 평균 88% 수준에 불과하여 최근 5개년 평균 4,631원/kg이었다. 2012년의 경우 189원/kg까지 단가 차이를 좁혔으나, 2013년 940원/kg까지 다시 벌어졌다.

〈표 4-27〉 홍성군과 논산시 딸기 출하처 및 단가 추이(2009~2013)

(단위 : 원)

출하 권역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홍성	서울권	3,740	99.6%	4,219	103.5 %	4,735	102.9 %	6,368	108.0 %	5,218	103.0 %	4,820	104.1 %
	경기권	4,474	119.1 %	4,352	106.8 %	5,499	119.5 %	5,517	93.6%	5,117	101.0 %	4,937	106.6 %
	강원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충청권	3,191	85.0%	2,994	73.5%	3,185	69.2%	3,025	51.3%	3,069	60.6%	3,101	67.0 %
	전라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경상권	3,965	105.6 %	0	0.0%	0	0.0%	0	0.0%	0	0.0%	3,965	85.6 %
	제주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평균	3,755	100.0 %	4,075	100.0 %	4,600	100.0 %	5,896	100.0 %	5,064	100.0 %	4,631	100.0 %
논산	서울권	4,547	107.3 %	5,088	106.1 %	5,584	106.0 %	6,704	110.2 %	6,067	101.0 %	5,535	105.1 %
	경기권	4,192	98.9%	4,965	103.9 %	5,465	103.7 %	6,348	104.3 %	5,789	96.4 %	5,363	101.8 %
	강원권	5,000	118.0 %	0	0.0%	0	0.0%	0	0.0%	0	0.0 %	5,000	94.9 %
	충청권	4,164	98.3%	4,065	84.8%	4,471	84.9%	5,237	86.1%	6,077	101.2 %	4,848	92.1 %
	전라권	4,286	101.1 %	3,400	70.9%	6,085	115.5 %	7,583	124.6 %	10,768	179.3 %	6,618	125.7 %
	경상권	876	20.7%	6,202	129.3 %	4,717	89.5%	8,063	132.5 %	12,467	207.6 %	1,414	26.9 %
	제주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정	2,744	64.7%	0	0.0%	11,383	216.1 %	1,265	20.8%	4,629	77.1%	2,364	44.9 %
	평균	4,238	100.0 %	4,736	100.0 %	5,268	100.0 %	6,085	100.0 %	6,004	100.0 %	5,266	100.0 %

## (2) 배추(절임배추)

일반적으로 배추는 생육기간 및 기상조건에 따라 품질 및 수확량 차이가 크고, 이에 따른 가격 진폭이 심한 주요 수급조절 대상품목이며, 출하시기에 따라 봄배추, 고랭지 배추(여름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월동배추)로 구분한다. 전국적으로 월동배추는 해남, 진도 일원에서, 봄배추는 충남 예산, 무안, 광주, 대구, 구리 등에서, 고랭지배추는 태백, 평창, 정선, 강릉 등 강원도 일대에서 주로 생산되는 등 일정부분 주산지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절임배추의 소비량(배추 1인당 소비량 : 60.6kg)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선호도 역시 신선배추 58%대 절임배추 42%로 조사되어 향후 신선배추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농업전망, 2014).

〈표 4-28〉 전국 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2000~2013)

(단위 : ha, 톤)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년
전체	면적	51,801	37,203	34,265	37,285	34,321	28,270	35,513	30,540	33,349	32,873
	생산량	3,149	2,325	2,217	2,585	2,529	1,783	2,680	2,151	2,612	2,323
봄 배추	면적	20,405	14,364	10,335	11,061	9,551	4,580	8,875	6,805	7,754	8,410
	생산량	910	566	429	482	419	192	304	364	512	362
고랭지 배추	면적	10,205	6,502	6,311	6,401	5,553	4,929	4,691	5,495	5,204	5,326
	생산량	385	254	253	247	211	136	144	203	179	186
가을 배추	면적	16,413	11,001	12,178	14,683	14,462	13,540	17,326	13,408	15,095	14,232
	생산량	1,617	1,115	1,139	1,505	1,583	1,188	1,897	1,298	1,573	1,456
겨울 배추	면적	5,701	5,336	5,441	5,130	4,755	5,221	4,621	4,832	5,296	4,906
	생산량	393	390	396	352	316	267	335	286	348	312

주 : 겨울배추는 행정통계 및 농업관측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봄배추는 겨울배추 추정치를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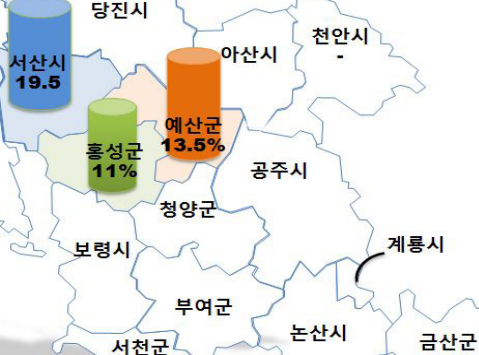
자료 : 농업전망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 도내에서는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생산되고 있어 서산, 예산, 홍성 등지가 주요 생산지역이다. 홍성군 관내에서는 광천과 결성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면적은 250ha수준(2012)으로 도내 11%의 재배면적 비중을 갖고 있다.

홍성군 배추의 충남 특화계수는 2.3, 전국 특화계수는 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충남 특화계수는 1.6, 전국 특화계수는 1.0 수준이며, 예산군은 충남특화계수 1.8, 전국 특화계수 1.2 수준이다.

## 충남 배추 시군 비중

- 주요 3개시군이 전체 생산면적의 44% 구성
- 서산 독자적으로 19.5% 가까운 비중을 가짐



〈그림 4-6〉 충청남도 배추생산 면적 비교

홍성군 관내 농협조직은 최근 5개년 연평균 12억 5천만원, 물량 4,053톤 수준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전체 생산량의 28%수준이다. 그중 광천농협의 취급액이 전체 농협조직 취급액의 54.8%(687백만원)점유하고 있다. 취급물량은 결성농협과 광천농협이 전체 농협 유통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다(광천농협 1,832톤,결성농협 1,624톤).

광천농협과 결성농협의 취급규모는 유사하지만 광천농협이 132원/kg의 단가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5년에 결성농협은 취급물량이 증가추세인 반면 광천농협은 감소 추세이다.

- 결성농협 : 1,689톤(2009) → 2,008톤(2013) \* 19% 증가
- 광천농협 : 1,418톤(2009) → 1,000톤(2013) \* 29% 감소

농협조직의 배추 출하처별 판매물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가락도매시장 대아청과에 대한 출하의존율이 84%로 출하처 다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단, 배추품목의 특성상 주거래처를 통해 안정적 단가 확보 등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출하처가 단일한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형 소비처 등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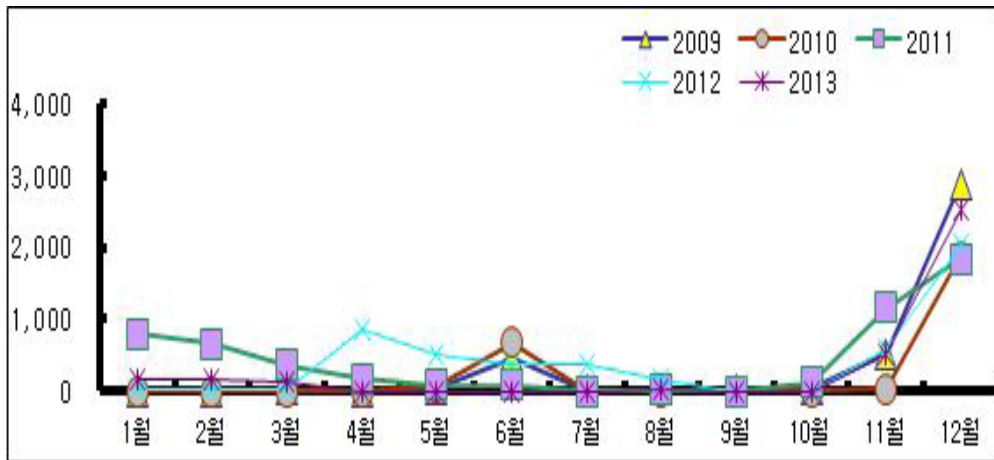


〈표 4-29〉 홍성군 배추 출하처 별 물량 추이(2009~2013)

출하처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물량	비중 %	물량	비중 %	물량	비중 %	물량	비중 %	물량	비중 %	물량	비중 %
대아청과(주)	361	55.9 %	157	28.2 %	2,882	87.4 %	2,659	94.9 %	468	99.6 %	1,305	84.0 %
한국청과(주)	7	1.1 %	57	10.2 %	191	5.8 %	0	0.0 %	0	0.0 %	51	3.3 %
경인농산	30	4.6 %	105	18.9 %	57	1.7 %	0	0.0 %	0	0.0 %	38	2.4 %
(주)인터넷청과	9	1.4 %	102	18.3 %	64	1.9 %	0	0.0 %	0	0.0 %	35	2.3 %
서부청과(주)	62	9.6 %	64	11.5 %	0	0.0 %	0	0.0 %	0	0.0 %	25	1.6 %
5대외 기타	179	27.7 %	72	12.9 %	101	3.1 %	144	5.1 %	3	0.6 %	100	6.4 %
합계	646	100 %	557	100 %	3,296	100 %	2,803	100 %	470	100 %	1,554	100 %

농협조직을 통한 배추의 월별 취급 물량을 분석한 결과, 홍성 배추는 주로 가을배추가 생산, 유통되고 있지만 봄배추, 가을배추, 월동배추, 저장 등 연중 공급이 일정부분 가능한 물량 취급 구조를 보이고 있다.

12월 김장철에 5개년 평균 2,227톤이 유통되어 전체 50%이상이 유통되지만, 비수기인 9월 평균 3톤이 소량 유통되는 등 연중 유통 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 및 내포신도시 등 신규 소비처 발굴시 직거래를 통한 소비처 확보가 가능하고, 규모의 물량화(가을배추)와 계획생산에 의한 소규모 대안유통이 병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7〉 홍성군 농협조직 배추 월별 취급량 추이(200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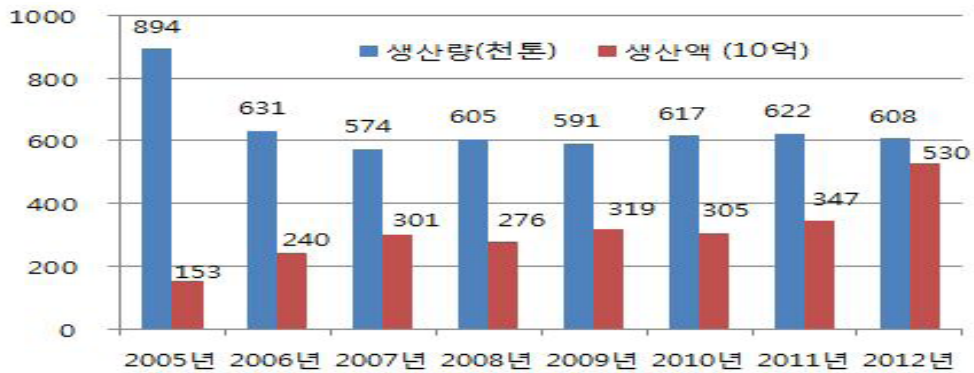
홍성군은 배추품목의 수급조절을 위해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을배추 최저 생산비(2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다(농협 등과 계약재배시 대상 면적은 최저 생산비 지원이 제외).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7.25. 제정, 조례 제2054호)**

- 목적 :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의 도모
- 대상작물 : 가을배추, 가을무
- 지원농가 : 홍성군 농가(경작자) 중 가을배추와 가을무 990㎡ 이상 3,300㎡ 미만 재배농가
- 지원한도 : 200만원 이내
- 지급조건 :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홍성군 농림수산심의회에서 결정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는 가을배추, 가을무에 한함
- 지원방식 : 출하성수기 이전 자진 산지폐기 후 지급 신청
- 단서조항 : 단, 농협 등과의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발매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폐기하지 않고 시장출하 등 임의 처분한 경우 제외

### (3) 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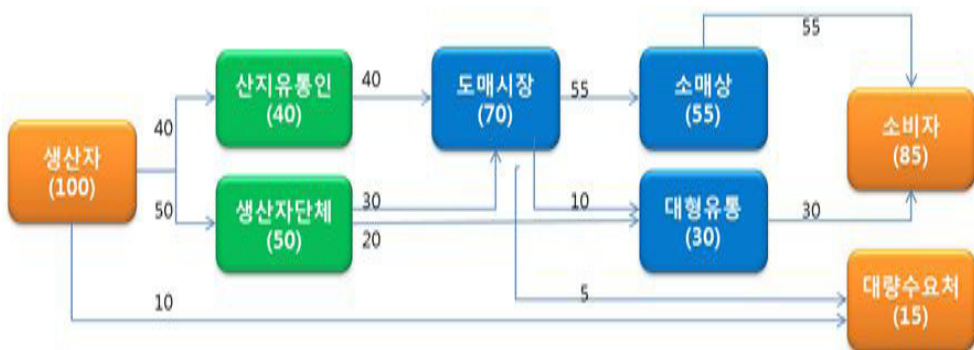
최근 감자가격의 강세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재배면적은 27,430ha (2013)이며, 생산량 및 생산액(2012)은 608천톤 (5,300억원) 이다(평균 단위 10a당 2,600kg).



〈그림 4-8〉 전국 감자 생산량 및 생산액 추이(2005~2012)

감자는 최근 FTA체결의 여파로 면적 및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되며, 1인당 소비량은 14kg수준이다(2014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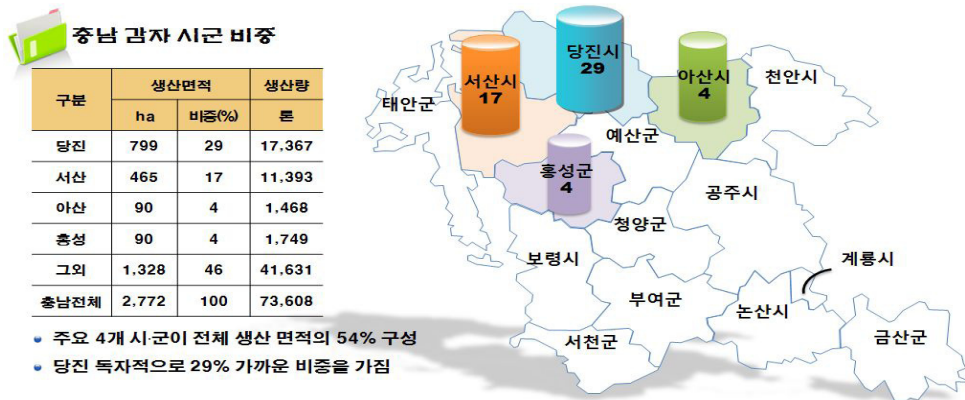
감자의 유통은 주로 조리용으로 사용되며, 학교급식의 주품목이기도 하다. 산지유통인과 생산자단체가 주로 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이 70%의 물량이 집중되는 대표 경로이다. 다만, 최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와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어 산지의 시장 교섭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그림 4-9〉 감자품목 유통경로(aT Kamis)

충남의 경우, 2012년 기준 당진, 서산, 홍성의 순으로 재배규모가 크고, 주품종은 수미품종으로 충남 전체재배 품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와 서산시 재배면적 비율은 도내 46% 차지하고 있으며, 당진, 서산, 아산, 홍성 등 주요 4개 시군이 전체 생산면적의 54%를 차지한다. 당진시 독자적으로 29% 재배면적 비중을 가지며, 당진은 수미 품종이 75% 점유하는 데 반해, 홍성은 대서품종이 71% 수준이다.



〈그림 4-10〉 충청남도 감자생산 면적 비교

특히, 충남도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도 전략품목으로 감자 품목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사업 내용으로 감자 재배매뉴얼 제작, 도내 감자품목 참여농협조직간 연계 협력 추진, 마케팅 및 상품화 전략 수립 등 다각적 지원체계 검토 수립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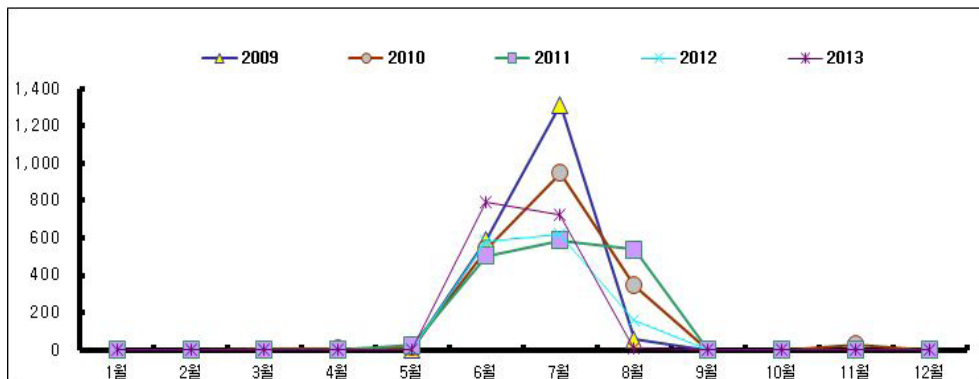
홍성군 관내 농협조직은 최근 5개년 연평균 1,645톤(2013)규모를 취급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농협조직 취급물량은 1,364톤으로 농협조직을 통한 경유율이 78%수준에 달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농협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서부농협, 광천농협, 결성농협을 중심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다. 서부농협이 539톤 (32.7%), 광천농협이 377톤이 (22.9%), 결성농협이 285톤 (17.3%), 구항농협이 229톤 (13.9%)을 유통하고 있다. 농협별 판매단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623원/kg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내 최대 주산지인 당진시의 경우 770원/kg으로 홍성대비 24%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0〉 홍성군 농협별 판매 단가 추이(2009~2013)

(단위 : 원/kg)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단가	평균 대비
갈산농협	695	141.3 %	695	129.7 %	694	118.8 %	994	130.6 %	584	95.9 %	696	111.7 %
결성농협	450	91.5 %	477	89.0 %	564	96.6 %	675	88.7 %	698	114.6 %	543	87.2 %
광천농협	1,240	252.0 %	464	86.6 %	568	97.3 %	819	107.6 %	660	108.4 %	669	107.4 %
구항농협	197	40.0 %	469	87.5 %	540	92.5 %	594	78.1 %	519	85.2 %	372	59.7 %
금마농협	527	107.1 %	477	89.0 %	726	124.3 %	978	128.5 %	344	56.5 %	583	93.6 %
서부농협	496	100.8 %	530	98.9 %	580	99.3 %	725	95.3 %	590	96.9 %	581	93.3 %
장곡농협	608	123.6 %	890	166.0 %	714	122.3 %	839	110.2 %	595	97.7 %	757	121.5 %
홍동농협	459	93.3 %	545	101.7 %	478	81.8 %	801	105.3 %	585	96.1 %	558	89.6 %
홍북농협	662	134.6 %	779	145.3 %	674	115.4 %	950	124.8 %	663	108.9 %	746	119.7 %
홍성농협	620	126.0 %	742	138.4 %	581	99.5 %	999	131.3 %	702	115.3 %	729	117.0 %
합계	492 (평균)	100.0 %	536 (평균)	100.0 %	584 (평균)	100.0 %	761 (평균)	100.0 %	609 (평균)	100.0 %	623 (평균)	100.0 %

농협조직을 통한 월별 물량을 분석하면 6월~8월 출하물량이 99% 차지하고 있으며, 3개월 단기 취급물량(5개년 평균)은 1,660톤에 달한다. 홍성 감자는 도내 최대 산지인 당진시와 마찬가지로 하지감자가 주류이다. 당진시의 경우 같은 기간 농협조직의 전체 취급물량의 82%에 해당하는 9,040톤이 집중 출하되어 경합 심화가 우려된다.



(단위 : 톤)

〈그림 4-11〉 홍성군 농협조직 감자 월별 취급량 추이(2009~2013)

주요 출하처 유형별로 판매물량을 분석한 결과, 홍성 감자는 도매시장과 일반 거래로 양분되고 있으며 도매시장 반입물량도 서울강서도매시장, 대전 오정도매시장, 서울 가락도매시장으로 분산 출하되고 있다. 이는 출하시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면 상당부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하처 유형별 판매물량

(단위: 톤)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도매시장	543	27.5%	724	38.3%	686	41.4%	585	42.9%	861	56.0%	680	40.4%
대형거래	25	1.3%	22	1.2%	19	1.2%	18	1.3%	8	0.5%	19	1.1%
일반거래	1,403	71.2%	1,143	60.5%	954	57.5%	762	55.9%	669	43.5%	986	58.5%
합계	1,972	100.0%	1,889	100.0%	1,660	100.0%	1,364	100.0%	1,538	100.0%	1,685	100.0%

주요도매시장 판매 물량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서울강서도매	158	29.2%	280	38.6%	325	47.4%	182	31.1%	296	34.4%	248	36.5%
대전오정도매	192	35.4%	178	24.5%	137	20.0%	164	28.0%	254	29.5%	185	27.2%
서울가락도매	149	27.4%	161	22.3%	112	16.3%	47	8.1%	105	12.2%	115	16.9%
구리도매	13	2.4%	12	1.7%	42	6.1%	168	28.7%	155	17.9%	78	11.5%
안산도매	31	5.6%	72	10.0%	68	9.9%	23	3.9%	50	5.9%	49	7.2%
5대외기타	0	0.0%	21	2.8%	2	0.4%	2	0.3%	1	0.1%	5	0.8%
합계	543	100.0%	724	100.0%	686	100.0%	585	100.0%	861	100.0%	680	100.0%

〈그림 4-12〉 출하처 유형별/도매시장별 판매물량

#### (4) 냉이

홍성군 냉이 품목의 경우, 전국 유통량의 80% 수준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통주체는 홍성압곡영농조합법인으로 충남 서북부 및 전라권 등에서 원물을 확보하여 전처리 등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 농협조직은 최근 5개년간(2009~2013)평균 60톤 규모, 취급액 1억7천만원 상당을 취급하고 있으며, 주요 취급 농협조직은 구항농협, 광천농협, 홍북농협으로 수탁물량이 100%를 차지한다.

주요 출하지역은 서울 77.6%, 경기 22.4%이며, 평균 판매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3,782원/kg으로 2009년 대비 126% 상승하였고, 최근 5개년 평균단가는 2,877원/kg이었다.

〈표 4-31〉 냉이 kg당 판매단가 연별 추이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판매단가 (kg당)	1,671원	3,013원	3,180원	3,493원	3,782원

웰빙 풍조에 따라 건강에 좋은 냉이 소비의 증가 및 단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작물로 시사점이 있다.

〈표 4-32〉 홍성군 농협별 냉이 취급 물량(2009~2013)

(단위 : 톤)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갈산농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결성농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광천농협	25	21.0%	26	32.9%	25	40.3%	20	47.6%	11	55.0%	21	35.0%
구항농협	75	63.0%	36	45.6%	12	19.4%	7	16.7%	0	0.0%	26	43.3%
금마농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서부농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곡농협	1	0.8%	2	2.5%	0	0.0%	0	0.0%	0	0.0%	1	1.7%
홍동농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홍북농협	18	15.1%	15	19.0%	24	38.7%	15	35.7%	9	45.0%	11	18.3%
홍성농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119	100%	79	100%	62	100%	42	100%	20	100%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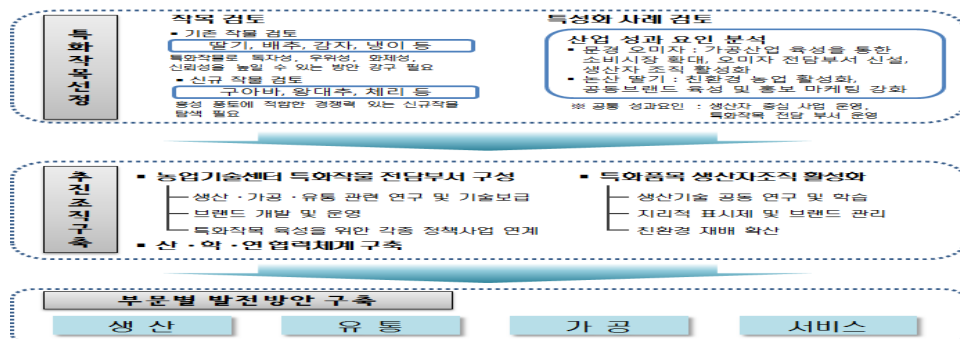
#### 4) 홍성군 특화작목 육성전략

##### (1) 홍성군 특화작목 육성 기본방향

지역특화농산업 육성 사례 분석결과 문경 오미자와 논산 딸기 공통적으로 생산자중심의 사업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특화작목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다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었다.

기존에 재배하던 작물과 기존에 생산하지 않거나 시범재배 중인 신규작물을 검토하여 홍성군 특화품목을 선정이 필요하며, 특화작목 검토시 독자성, 우위성, 화제성, 신뢰성 등의 특화작목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홍성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기술 전담부서와 생산자 조직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담부서, 생산자조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특화작목 재배 기술 및 가공기술, 서비스 산업 도입 방향 등을 설정해야 한다.



〈그림 4-13〉 홍성군 특화작목 육성 기본방향

##### (2) 지역특화농산업 추진조직 및 관련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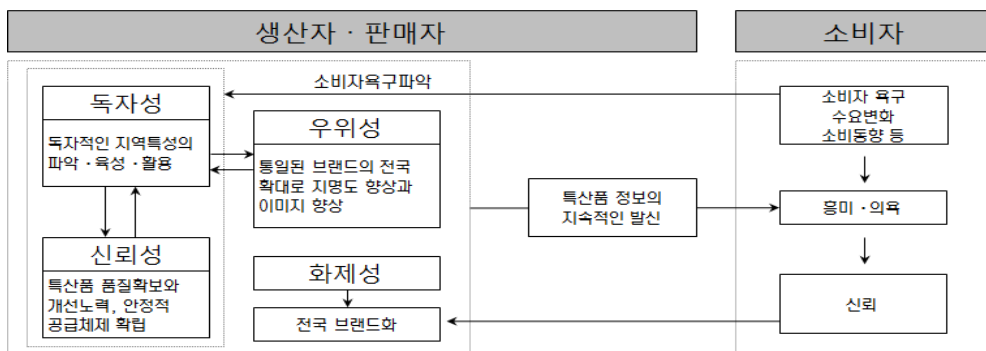
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농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지역특화작목을 발굴하고 발굴된 특화작목을 육성시키기 위해 특화작목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생산·가공·유통 및 체험·관광 산업 연계를 위한 연구 및 기술보급 활동, 브랜드 개발 및 운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연계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화작목이 선정되면 특화작목의 독자성, 우위성, 화제성, 신뢰성 등의 핵심요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소비자 욕구 및 수요를 연계하여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이끌어야 한다.

특화작목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 및 수요 등 특징을 파악하여 지역특화작목의 독자성, 우위성, 신뢰성, 우위성 등 핵심요소를 발전시켜야 하며, 지역특화작목 핵심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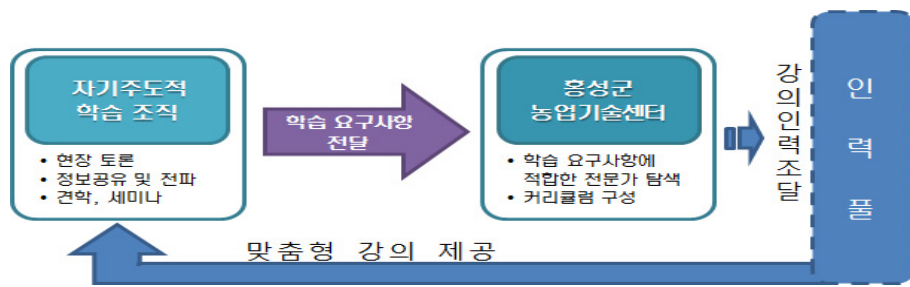
또한, 소비자들의 흥미와 의욕을 충족시킴으로써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신뢰도 형성하고,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전국브랜드화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림 4-14〉 지역특화작목 전국 브랜드화를 위한 핵심요소 연계

특화작목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ex: 문경 오미자대학, 논산 농업대학 딸기학과 등)을 통해 홍성군 농업 풍토에 적합한 특화작목 재배 방법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특화작목 재배농가 순회교육 및 기술지도 실시가 필요하다.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생산기술 및 가공기술 등을 개발하고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을 수립해야 한다. 특화품목 생산자 연구회를 조직하여 특화품목 재배기술에 대한 논의 및 연구와 공동학습을 실시해야한다. 특화품목 생산자 연구회는 자기주도적 학습조직으로 정기적으로 공부 모임을 가지며, 선진지견학 및 연구기관 방문 등의 활동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특화품목 생산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이나 교육수요가 발생하면 농업기술센터 특화품목 담당부서에 학습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맞춤형 강의를 실시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강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림 4-15〉 특화품목 생산자 연구회의 주민 주도적 학습 체계

생산품의 높은 품질과 균일한 규격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화품목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화품목의 상품화 기준을 설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재배방법(친환경)을 보급해야 한다. 특화작목 생산자 협의체는 과잉 생산 및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량 조절 및 가격결정과 관련한 협의회를 실시하며, 산지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방안 모색, 지역특화작목 브랜드화 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브랜드 전략 구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부분)** 농산업 부문별 발전방안으로는 먼저 생산부문의 경우 생산자조직 육성으로 생산자 의식통일, 재배품종통일, 재배기술상향 평균화, 출하단위 확보가 필요하며, 시설재배 보급, 적지적작, 적기수확을 통한 작황안정과 품질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소비자기호에 맞는 우량 종묘, 종축증식·보급 및 시장평가 등을 차기생산출하개선에 이용(피드백)하도록 하며, 저농약·유기재배 등의 기준 명확화와 기술 개발 검토, 전통채소 등 풍부한 유전자원 확보, 신품종, 새로운 작물 개발, 농업기술 지도체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유통부분)**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산지·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산지·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지의 규모화·직접화와 함께, 고품질생산체계를 바탕으로 한 등급화·표준화, 수급조절기능 수행할 수 있는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이 필요하다. 장수군의 경우 지역의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 APC 체계를 구축하여 일정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1차 생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판촉

활동 및 소비자 체험관련 사업을 통한 소비자 충성도 확보가 필요하다. 논산 딸기의 경우 체험관광사업을 통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가공 상품화를 통해 현지 사업체 수요 확충을 통한 관내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다.

유통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공급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농가간 출하조정 등으로 출하 단위 대형화 및 출하기간 장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공부분)** 가공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단위 R&D·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산자 조직, 가공업자, 지자체 통합 가공사업 기반 구축을 통해 가공사업의 전문화와 규모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현지 가공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상품개발 및 소비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영세 사업체의 통합 사업기반을 구축해 규모화·전문화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순창군의 경우 2012년 장류밸리 내에 HACCP 메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주)순창장류를 설립하고, 순창군, 농업인, 농협, 민간기업, 장류업체 등의 연계·협력을 통한 HACCP 메주 공장이 운영됨으로써 순창군 농업인, 장류업체, 기업이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기업과 제휴를 통한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도 가공분야 발전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식품관련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창 복분자의 경우 국순당과 제휴하여 '명작복분자주'를 개발해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체험관광부분)** 서비스(체험·관광) 부문에서는 체험·관광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지역의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을 이해하며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

고창 복분자의 경우 생산, 가공, 전시홍보, 연구, 체험, 관광 인프라를 집적화, 단지화하여 복분자 관련 랜드마크 명소를 조성하여 6차산업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체험·관광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연결한 순환 패키지 프로그램 구축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한 실정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기술수요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책 및 현장수요자 중심의 R&D 수요 발굴 및 사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농업연구기반조성’지원 대상을 농업기술센터로 선택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 수요 반영에 미흡한 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R&D 투자 효율성도 낮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현장 지도사업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농업·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이전·보급이 필수적이며, 이 기능의 중심에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해 있다.

지역 농업인들이 무엇을 재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원들은 그동안 현장과 밀착되어 기술수요 파악, 보급 아울렛, 애프터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2개 지역에 농업인 상담소를 두어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4~8월 한시적으로 홍북, 홍동, 갈산 지역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설운영하는 1개의 상담소에서 3~4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기술수요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에 인력 및 시설규모가 부족한 형편이다.

〈표 4-33〉 홍성군 농업인 상담소 현황

명 칭		주 소	담당읍면	비고
상설운영	서부 상담소	갈산면 갈산로120번길 6	결성, 서부, 갈산, 구항	
	남부 상담소	광천읍 홍남로 780	홍성, 광천, 장곡, 은하	
한시적 운영		- 4~8월 홍북, 홍동, 갈산 지역에 한시적 상담소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는 구성되어 행정과 민간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업기술 지도 및 주민 수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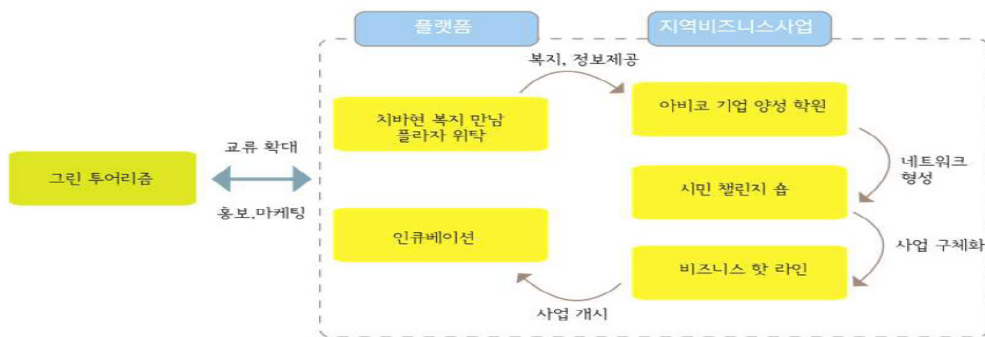
## 2)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관련 사례

### (1) 국외 자생적 독립구조 커뮤니티조직 사례

자생적 독립구조 첫 번째 사례로는 영국의 '토티네즈 전환마을(Transition Town Totenes : TTT)'을 들 수 있다. '토티네즈 전환마을' 설립과정은 2005년부터 시작된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 영화상영 등을 하며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 등이 발단이 되었다.

토티네즈 주민과 지역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꾸려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핵심가치 및 전략으로는 유가상승, 경제적 불확실성,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TTT Central Service(사무실 개방, 시민프로그램 운영, 워킹그룹지원, 투어프로그램운영 등), TTT코어그룹 운영(이사회 역할, 워킹그룹별 핵심멤버 1명 참여), 음식, 교육, 건강 및 웰빙 등 다양한 분야의 워킹그룹 활동, 오픈 스페이스 운영(새로운 아이디어 공유와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진행) 등이 있다.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는 지역정부와 학교, 연구소 등과 맺고 있다. 지역정부에서는 정치적 요구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 및 연구소에서는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연구소에서는 함께 전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의 ACOBA(Abico Community Business Association)이다.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민간설립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COBA는 2003년 4월에 설립되었는데, 2001년 아비코 시에서 개최된 커뮤니티비즈니스 포럼 및 입문 강좌를 수강한 주민들 25명이 자생적 노력으로 설립하였다. 주요사업 분야는 지역비즈니스 지원사업(지역비즈니스 핫라인, 아비코 기업양성학원 운영, 시민 챌린지숍 운영, 중간지원 등의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재정 관리자 사업(치바현 복지 만남 플라자 운영관리), 세미나사업(CB와 관련된 세미나 기획 운영), 중간지원 사업(CB기업가 경영자 등에 전면적 지원), 개발사업(시민사이트의 운영관리), 교류사업(다른 도시 마을만들기 단체와의 교류 촉진, 해외 시민단체, NPO와의 교류 촉진 및 정보공유 등) 등이 있다.



〈그림 4-17〉 ABICO의 사업구조

자료 : 희망제작소(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국내외 사례조사

## (2) 함양군 농업인 자기주도 학습조직 육성사례

함양군의 지역농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요약하면 ‘학습을 통한 농업 기술혁신, 혁신의 결과인 농가소득 증대’라고 할 수 있다.

함양군은 2003년 함양군 전체 농가 7,944호 중 1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얻은 농가는 25호에 불과 했으나 2004년에 71호 2005년에 112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함양군의 이같은 변화는 2003년부터 추진해온 ‘100+100 혁신운동’의 성과로 알려져 있다. ‘100+100 혁신운동’은 농가소득 1억원 이상을 버는 농가 100호와 100세이상 장수하는 주민 100명 이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단기간에 소득이 크게 증가한 함양군의 지역농업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학습 → 기술 및 경영 혁신 →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형태의 혁신과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0+100 혁신운동’은 함양군수가 제안하고 군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공식적이고 특정한 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시책을 내놓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스스로 혁신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는 접근방식이었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었다.

함양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혁신지원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활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농업인들이 각자의 경영에 있어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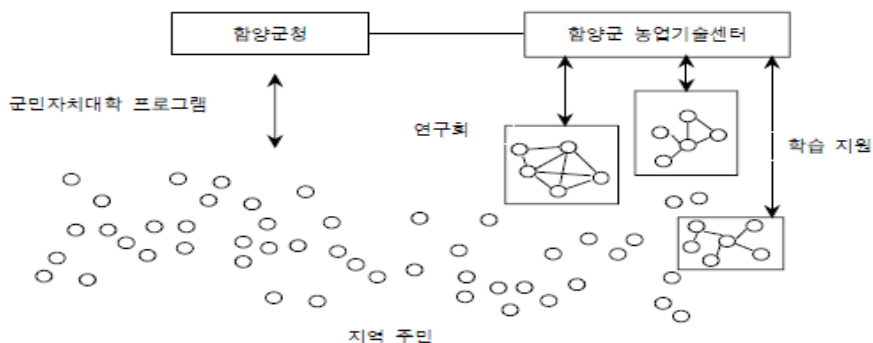
‘자기주도 학습 조직’을 육성하였다. 둘째, 농업경영을 혁신하려는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방식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양 군청 조직을 정비하였다. 셋째, 농업경영을 적극 혁신해 나가지 못하는 다수의 농업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농업관련 기초 지식과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기반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함양군은 ‘함양 쌀 연구회’, ‘파프리카 연구회’,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 ‘딸기 연구회’의 네 개 연구모임 단체가 지역농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연구회들은 매월 1회 이상 공부 모임을 가지며, 선진지 견학이나 전문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신기술을 접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연구회 활동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가 관여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구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하고 운영하는 ‘자율성이 매우 강한 학습단체’의 특징을 보인다.

함양군의 몇몇 농업인 학습 조직들은 지역 농업인의 학습 요구에 기초하여 출발한 모임으로 학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농업 소득 증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미 정관을 만들고 활동 중인 연구회 중에서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연구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경우 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회를 ‘선도적 연구회’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함양군 네 개의 ‘선도적 연구회’ 들은 농업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토대로 결성되었고 상대적으로 젊고 경영규모가 큰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림 4-18〉 함양군의 농업인 자기주도 학습 조직 형성

자료 : 송미령 외 4인(2006). 농촌 지역혁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홍성군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육성 계획

#### (1) 집단학습을 통한 커뮤니티 조직 역량강화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이 농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교육, 연구개발과제, 정책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 작목별 농가들의 집단학습을 통한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조직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비즈니스 형식의 활동을 수행하는 실천이다. 이 특별한 종류의 실천이 성과를 거두려면 철저하게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문제제기 → 집합적 학습 → 조직화'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은 관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집단적 학습에서 발전하여 조직화를 이루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주민 스스로 농업현장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문제제기 → 집합적 학습 → 조직화'의 과정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아래로부터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민 학습이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주민 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및 자문 활동을 지원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습 조직들이 커뮤니티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화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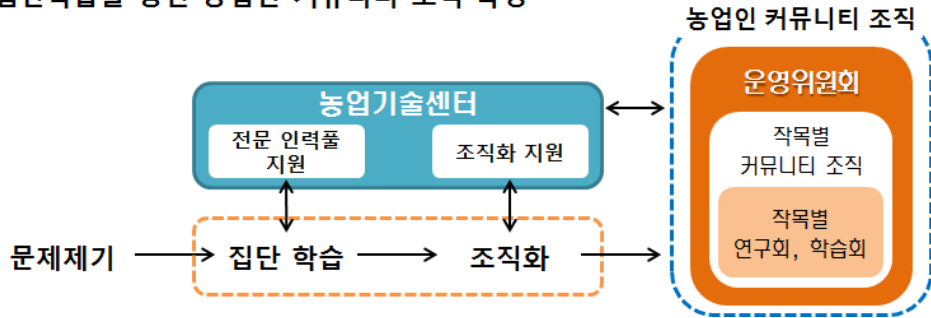
농업기술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 학습을 지원하는 동시에 농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은 주민들의 자발적 학습을 통해 발견되는 기술 수요 및 정책사업 수요를 농업기술센터에 전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각 작목별 학습 및 연구조직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각 작목별 학습 및 연구조직을 바탕으로 작목별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하고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목별 기술 및 정책·연구 수요를 종합하여 필요한

사업발굴, 교육 커리큘럼 요구, R&D과제 발굴 등을 실시한다.

#### 집단학습을 통한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육성



〈그림 4-19〉 집단학습을 통한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육성 체계도

#### 4) 농업인 커뮤니티조직 활용방안

##### (1) 농업인 커뮤니티조직 운영위원회 역할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작목별 요구사항을 정리(작목별 연계가능성 검토, 주민 수요 구체화)하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주민 수요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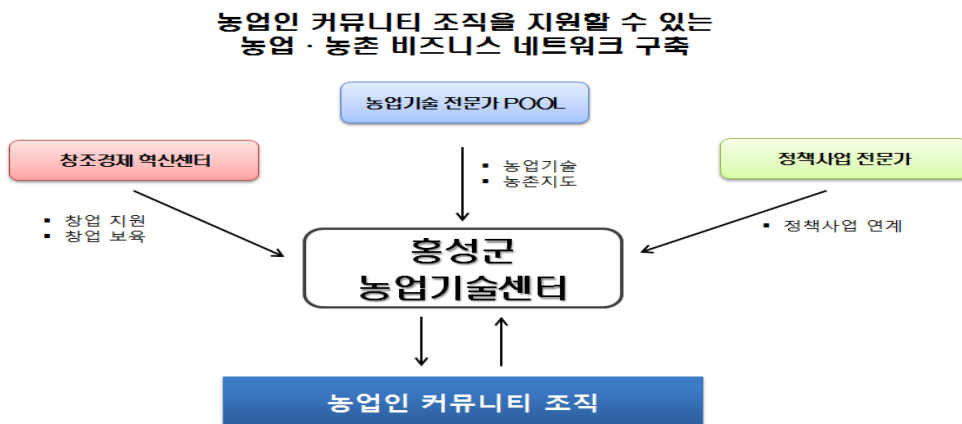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으로부터 전달된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농업인수요를 반영하여 기술지도 및 정책사업 연계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및 사업전개가 가능하다.



〈그림 4-20〉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 활용 계획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인들이 농업법인 및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 창업관련 기관과 연계시켜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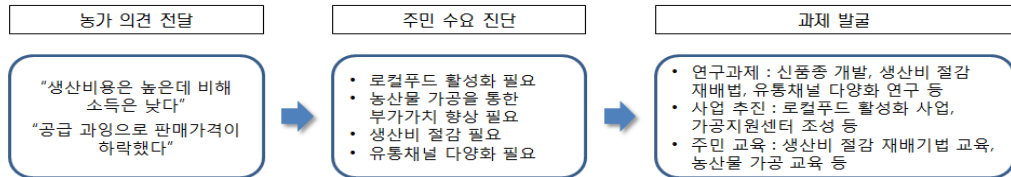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커뮤니티로부터 농촌현장에서 창업요구, 농업기술 수요, 사업추진 요구 등을 적절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농업·농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촌현장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한다는 수요를 전해 받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적절한 창업지원 기관을 연결해주고, 농업기술 전문가 및 정책사업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업·농촌 관련 수요를 신속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림 4-21〉 농업·농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3) 농업인 커뮤니티조직 활용 예시

농가에서 생산비용은 높는데, 소득이 낮다거나, 공급 과잉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했다는 의견이 전달될 경우 이를 분석하여 농가에 필요한 현안들을 도출하고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및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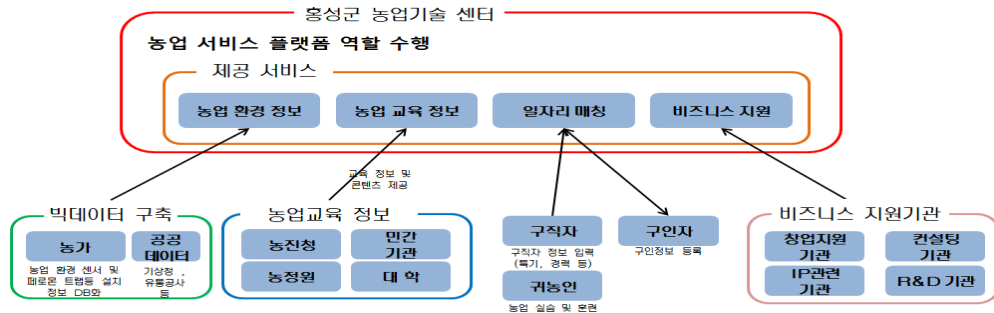
〈그림 4-22〉 농가의견을 통한 과제발굴

## 6.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 3- 농업농촌 서비스 플랫폼 역할 강화

### 1) 농업농촌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 및 제공 서비스

#### (1) 농업농촌 서비스 플랫폼 개념

농업농촌 서비스 플랫폼은 농업 환경 정보, 일자리 정보, 농업 교육정보, 농업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연계하여 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의미한다. 농업농촌 서비스 플랫폼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하고 농촌지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4-23〉 농업 서비스 플랫폼 개념

## (2) 농업농촌 서비스 플랫폼 기능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 서비스 포털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농촌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농업환경 정보 서비스와 농업 교육정보 서비스,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이 있다.

**농업환경정보 서비스**는 홍성군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각 농가별 농업환경 및 해충정보에 관한 빅데이터 구축하고, 추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농업 투입 및 병해충 예방활동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기반 농업환경 정보 제공 서비스 이다.

각 농가의 환경 정보 뿐 만 아니라 기상정보 및 판매·유통정보 등 공공 정보를 실시간으로 포털에 게시하여 농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농업 교육정보 서비스**는 농진청 교육 정보 포털 ‘농사로’와 연계하여 농가에서 다양한 농업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사로’ 서비스외에 홍성군 농가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집합적 교육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홍성군 농촌에서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원하는 품종 및 지역에 맞게 구인자와 매칭하여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서비스이다. 홍성군 주요 재배 작목에 맞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구직자 전문성 확보하고 구직자 및 구인자 상호 평가를 통해 우수한 노동력 제공 및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지원서비스**는 창업지원에서부터 각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정보 및 지원서비스(기관)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2) 농업서비스 플랫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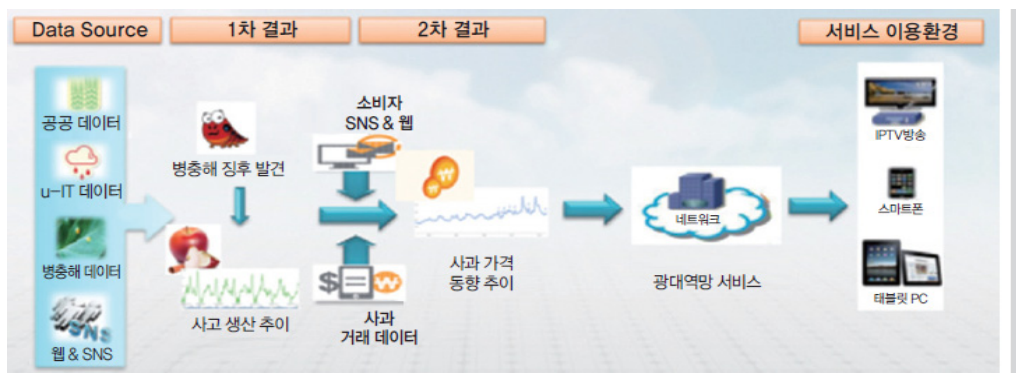
### (1)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서비스 구축(경상북도 사례)

경상북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서비스 플랫폼은 2014년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였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경북 사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과 재배 환경센서를 이용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U-IT 센서와 기상청으로부터 수집한 기후 데이터와 페르몬 트랩을 통해 수집된 병해충 유충 수 등 정형 데이터와 웹과 SNS의 병해충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병해충의 발생 경위와 정보를 공유, 농민들에게 농약 살포 시기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4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IPTV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농촌 광대역망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마을회관 5곳에 IPTV, 사과재배 농가 25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결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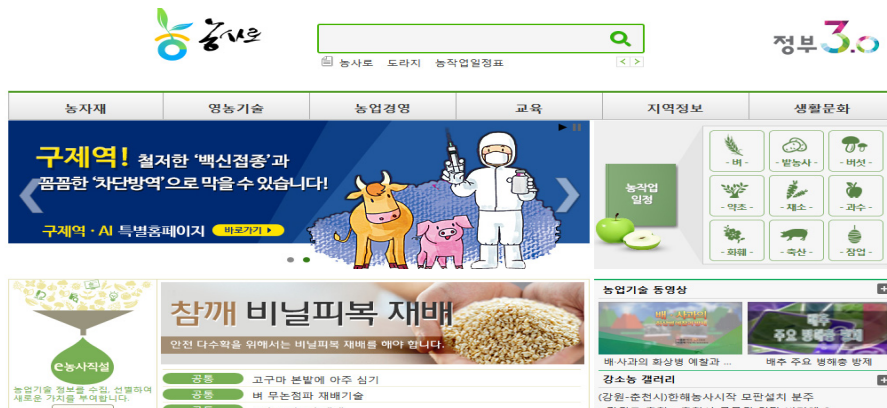
〈그림 4-24〉 경상북도 사과 빅데이터 농업서비스 개념도

자료 : 경상북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3

## (2) 농진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서비스(<http://www.nongsaro.go.kr>)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이 원하는 농업기술정보를 한눈에 일괄 서비스 하는 서비스로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4개 소속기관별로 별도 운영해 오던 14개 농업정보를 통합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

기존의 14개 농업정보를 농업기술, 농기계·농자재, 농업안전과 건강, 농식품과 생활농업, 참여공간 5개 기술유형으로 분류하여 5백여만건의 농업기술정보를 연계·통합 서비스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농사로’ 검색포털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찾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작목과 품종 등 사용자의 관심에 맞는 사용자 맞춤형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25〉 농사로 홈페이지 화면

### (3) 농촌 일자리 플랫폼 푸마시(poomasy.com)

국내 전체 농경지의 52%를 소유하고 있는 대농과 강소농의 경우,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수입의 40%를 인건비에 지출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와 농촌경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손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87.4%가 응답했으며,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2%로 농업 일자리 문제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푸마시의 창업동기는 이러한 농촌의 구인난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구인자와 도시의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구직자와 구인자가 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각각의 정보를 매칭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푸마시 앱서비스는 도시민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인접한 농촌으로 출퇴근하며 자신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손쉽게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농가는 푸마시의 자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검증된 노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까다롭던 인력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일자리 직거래 플랫폼 ‘푸마시’는 경남 일대에서 사단법인, 농민단체와 제휴하여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17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주일, 한달, 일년의 미래소득을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2015년 6월 소득 시뮬레이션 특허 출원) 안정적인 프리랜서로 정착할 수 있고,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체험과 가계 수입 보전을 가능케 하여, 귀농귀촌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

## 농촌 구인자와 도시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일자리 직거래 플랫폼〕



〈그림 4-26〉 일자리 직거래 플랫폼 ‘푸마시’ 서비스 개요  
자료 : ‘푸마시’ 홈페이지(poomasy.com)

### 3) 농업서비스 플랫폼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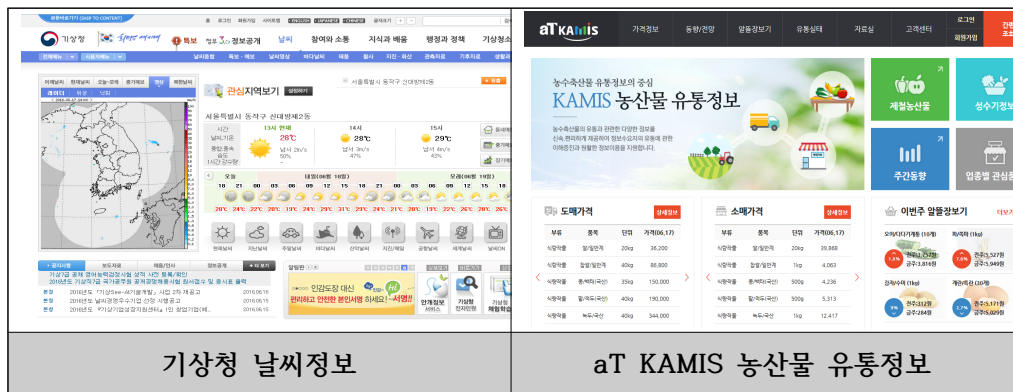
#### (1) 농업환경 정보 서비스

농업환경 정보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 팜 확산사업 및 창조마을 사업과 연계, 농촌지역 ICT환경 도입이 필요하다.

농업서비스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빅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촌현장의 환경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업환경 데이터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 사업, 창조마을 사업 등 정부사업 실시를 통해 ICT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화작물에 ICT도입과 농업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특화작목 육성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다른 작목으로 범위를 확대가 필요하다. 농업관련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기상청 날씨정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서비스하는 농산물 유통정보 KAMIS와 연계하여 홍성군 지역 및 생산작물과 관련한 정보 제공해야 한다.





〈그림 4-27〉 기상청 날씨정보 및 aT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이러한 플랫폼은 홍성군 차원이 아닌 충남도 차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각종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얻을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농업ICT 창업이 촉진될 수도 있다.



〈그림 4-28〉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 (2) 농업교육 정보

기존 농업 교육 정보 제공 기관과 연계한 홍성군 농업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 정보 중 홍성군에 맞는 교육 내용을 종합하여 게시하고 홍성군 농업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통해 찾아보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교육정보를 작목별, 대상별, 교육방법 별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교육정보를 보다 보기 쉽게 분류하고 홈페이지의 교육정보 및 콘텐츠 관리를 위한 전담 직원 필요하다.

## (3)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농업 인력 훈련 서비스를 통해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구직자가 희망하는 작물 및 분야에 대한 현장 실습 및 재배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홍성군 미래의 전문 농업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기초적인 농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농업 현장에 적응하기 쉽도록 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투입하여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유도한다.

예비 귀농·귀촌인에 대한 영농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귀농·귀촌인이 홍성군에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호하는 작목의 농장에서 농작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한다.

세분화된 프로필 구성으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족할 수 있는 매칭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특기 및 경력과 구인자가 희망하는 노동력을 매칭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상호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인자 및 구직자의 프로필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입력틀을 제공해야 한다.

정해진 일이 끝난 이후 구인자와 구직자간 상호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구인자 및 구직자의 등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호평가를 통해 구직자는 성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최대한의 대우를 해줄 수 있다.

#### (4) 통합 농업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

농업환경 정보서비스, 농업교육 정보 제공 서비스, 일자리 매칭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창업) 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팀을 두고 관리해야 하며 사용자(농업인)들의 지속적인 평가와 협업적 기관을 발굴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시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시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이 효과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농촌지도사업여건 및 환경 분석을 통해 농촌지도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지금의 농촌지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중앙과 지역의 조화,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조화 균형, 농업생산기술 및 외연확대기술등 모순되어 보이는 듯 한 사이에서 그 발전 비전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은 기술 및 시장 패라다임의 전환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농촌지도사업만으로는 모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미래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농촌지도사업 농업에서 농촌으로, 농촌의 미래를 여는 농촌 발전 Network Hub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중간지원조직 육성(협력), 창업지원 관련 기관과 농업기술센터 협업, 농촌지도사업 수행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 및 과제를 홍성군에 적용하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홍성군은 축산과 쌀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경제성이 뛰어나고 지역을 대표할만한 원예분야의 특성화 작물 생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홍성군 대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화작목을 선정한 이후에는 특화작목 전담부서 조직과 특화작목 생산자 학습조직을 구축해야하며,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이 조직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이 ‘문제제기 → 집합적 학습 → 조직화’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조직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이 구축된 이후에는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에서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홍성군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야 하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지도 사업과 연구사업은 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농업 서비스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서비스 플랫폼은 농업 환경 정보, 일자리 정보, 농업 교육정보,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연구개발 정보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과 빅데이터 구축,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및 앱 개발, 교육 콘텐츠 연계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농촌지도사업의 여건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홍성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충남 각 지자체마다 농촌지도사업의 여건과 현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한계가 존재 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구체적인 농촌지도사업 개선을 위한 사업 구상이 필요하며,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충청남도 범위의 사업 모색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 했을 뿐 생산·유통·가공·서비스 각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중 홍성군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는 홍성군의 주요 생산 작물에 대한 검토만 있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홍성군 농업 환경에 적합한 신규작물에 대한 검토와 이를 활용한 6차산업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송기진(2003). 농촌지도사의 지방직 이후 직무변화에 관한 연구:충청남도를 사례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 이병서, 위태석(2005), 지역특화작목의 브랜드화 방안, 농업경영정보, 농촌진흥청.
- 송미령, 박주영, 김정섭, 오형은, 황정임(2006), 농촌 지역혁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고순철(2007), 유형별 시범 농업기술센터 모델 개발, 농촌진흥청.
- 송두범(201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충청남도
- 지역농업네트워크(2014), 홍성군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 홍성군.
- 박문호, 김용렬, 김영준(2014),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실태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희망제작소(2015), 6차산업 수익모델 성과분석 및 코디네이터 역량 개발 정책 연구용역, 농촌진흥청.
- 희망제작소(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국내외 사례조사
- 김만수(2011). 경기도 농촌지도사업의 통합과 과제. 건국대학교 축산학 박사학위 논문
- 김종선, 송위진, 성지은(2015),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연계조직 육성방안, STEPI Insight 제163호.
- 김종선 외(2014), 과학기술·ICT와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만들기-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전략, 미래창조과학부.
- 김성수, 김진모, 주대진(2010),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농업연구와 지도체계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4호, pp655-683.
- 김재현, 장주언, 이호정(201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지역사회투자활동과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의 1사1촌 운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 회지 제14권 제2호, pp211-224.
- 김정섭(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집합적 학습, 농촌지도와 개발 제20권 3호, pp603-642.

유영심(2009), 정통장인 보유기능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강원발전연구원.

농촌지도사업 발전기획단(2002), 농촌지도사업 발전기획단 운영 경과보고

현대경제연구원(2016),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국회입법조사처(2015),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NARS현장보고서 제41호.

농촌지도사업보고서(2015), 농촌진흥청

국토연구원(201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 및 전망.

희망제작소(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국내외 사례조사.

지방농촌진흥기관 발전기획단(2006), 일본의 농촌지도사업. 농촌진흥청

강성욱(2011), 완주군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례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완주군(2008),약속프로젝트 추진 5개년 계획,

홍성군(2015), 통계연보.

통계청(2015), 농가경제조사.

농업전망 2014(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통산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http://www.ft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http://www.naqs.go.kr))

문경시농업기술센터([farm.gbmg.go.kr](http://farm.gbmg.go.kr))

논산시농업기술센터([nongup.nonsan.go.kr](http://nongup.nonsan.go.kr))

홍성군농업기술센터([farm.hongseong.go.kr](http://farm.hongseong.go.kr))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서윤정 정앤서컨설팅 대표

전략연구 2016-45 · 충남 시·군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글쓴이 · 서윤정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12월 31일 / 발행 · 2015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24(기획조정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37-7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